



소비자 일상 파고든 '기술의 진보' 2



제네시스 GV80부터...신년벽두 신차경쟁 13

코스피 (12월 31일 (23일 대비))
2197.67 (-6.04P)
코스닥
669.83 (-22.21P)
환율 (달러당 원화)
1156.40 (+7.9원)
금리 (국고채 3년물)
1.360% (-0.023%p)

불통사회... 1인당 '갈등비용' 만 年492만원

계층·이념·세대·남녀 대립... 상대방 경시 풍조 심각
'이해와 존중' 갈등 잘 다스려도 1인당 GDP 27% 증가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오는 심각한 갈등 현상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여러 방법으로 언론(言路)가 확장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

특히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지던 갈등 문제는 사회 영역으로 넘어와 일상이 되고 있다. '계층 간 갈등' 양상은 지속되고 있고, 2010년대 초반 고개를 들기 시작한 '세대 간 갈등'과 최근 격해진 '남녀 간 갈등'은 청년들을 갈등의 중심으로 몰아넣으며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보·보수 갈등이 크다고 보는 견해는 91.8%로 매우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의 77.3%보다 14.5%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크다고 보는 견해는 2016년 90.0%에서 85.3%로 4.7%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 상황도 3년 전과 마찬가지로 80%대를 유지했다. 이어 부유층·서민층 간 갈등(78.9%), 기업가·근로자 간 갈등(77.7%), 기성세대·젊은 세대 간 갈등(68.0%), 수도권·지방 간 갈등(61.7%), 남성·여성 간 갈등(54.9%) 등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각종 갈등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선 막대한 대가가 요구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최대 2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민 1인당 매년 492만 원을 쓰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갈등의 골 깊은 한국사회 (단위: %)

진보 vs 보수	91.8
정규직 vs 비정규직	85.3
대기업 vs 중소기업	81.1
부유층 vs 서민층	78.9
기업가 vs 근로자	77.7
기성세대 vs 젊은세대	68.0
수도권 vs 지방	61.7
남성 vs 여성	54.9
한국인 vs 외국인	49.7

*성인 5100명 대상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는 갈등만 잘 추슬러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 증가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경제성장률이 연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방이나 혐오가 아닌 생산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좌우를 떠나 서로가 존중받지 못했다"며 대표적 이념 갈등의 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시 풍조'를 지목했다.

신년 특집 지면 안내

주목받는 쥐띠 CEO	8~9
경자년 경제 대전망	14~15
여성 전문가들의 부동산 예측	17
글로벌 기업 '빅뱅'	18
재기 기업에 희망을	19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	23



순수 국산 로봇이 쓴 '庚子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2020년을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산업과 기술 간 융합을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인접 분야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로봇 융합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간형 로봇 휴보(HUBO) 개발진 출신으로 구성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우리 기술로 만든 산업용 협동로봇 RB시리즈 2대가 동시에 움직이며 '庚子年(경자년)'을 그리고 있다. (니콘D5, 24~70mm 렌즈, 감도 100, 조리개 22, 셔터스피드 25초, 플래시 중등 촬영)

대전=신태현 기자 holjjak@

트럼프 "美·中 1단계 무역합의 15일 서명"

트위터에 "백악관서 진행" 밝혀
2단계 회담 베이징서 시작할 것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침표를 찍을 1단계 무역협상 서명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국과의 매우 크고 포괄적인 1단계 무역합의에 2020년 1월 15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는 중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10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농산물 구매, 관세 철폐 범위 등 세부사항을 두고 한동안 줄다리기를 하던 양국은 지난달 13일 약 두 달 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 제품을 대규모

계 협상을 위한 미·중 정상 간 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나중에 나는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며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10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농산물 구매, 관세 철폐 범위 등 세부사항을 두고 한동안 줄다리기를 하던 양국은 지난달 13일 약 두 달 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 제품을 대규모

로 구매하고, 대신 미국은 계획했던 추가 관세 철폐와 더불어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 합의문 서명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락되지만, 2단계 협상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협상에서 다루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보조금과 첨단기술 등을 2단계 의제로,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 강제 메커니즘 논의를 3단계 의제로 거론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이 쟁점에서 쉽사리 양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2020년은 '함께 행복'의 해

2020, 똑같은 두 숫자가 더해진 한 해처럼
행복에 또 다른 행복이 더해지는 한 해가 되길
함께이기에 '행복'이 더 커지는 새해가 되길
SK도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기술의 진보' 소비자 일상을 파고들다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7일 개막... 화두는 '신기술'보다 '소비자' 가사도움 로봇·플라잉카·식물재배기 등 편리한 미래사회 선포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의 핵심 화두였다. 올해 CES 2020 역시 기술적인 화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신기술'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어떤 신기술을 갖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CES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가전협회(CTA)도 "CES 2020은 이전과 달리 일상에 스며든 기술 혁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0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미래 생활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서비스와 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접단 반도체, 5G(5세대) 이동 통신으로 무장한 제품들을 공개한다.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장 사장은 CES 2020 기조

삼성전자

주방·청소 도우미 로봇 등 AI·로봇 프로젝트 '네온' 공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제품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소개할 계획이다.

또 AI가 적용된 삼성봇 셰프(주방 도우미 로봇), 삼성봇 클린(청소 도우미 로봇) 등의 최신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미국 내 개발팀이 주도해온 AI·로봇 프로젝트 '네온(Neon)'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는 '어디서든 내 집처럼'을 주제로 구성된 체험공간 'LG 씽큐(ThinQ) 존'을 전면에 내세운다.

△집 안에서 누리는 AI 솔루션 'LG 씽큐 홈', 차량 등 이동수단에서 집을 제어하는 '커넥티드카 존' △나를 닮은 3D 아바



LG전자

옷 맵시 3D 아바타로 '가상 피팅' 디지털 텃밭 '식물재배기' 등 선포

타를 띄우고, 실제 옷을 입혀보며 가상 피팅을 해볼 수 있는 '씽큐 핏 컬렉션' △접객, 음식 조리, 서빙, 설거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클로이 테이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LG전자는 누구나 집 안에서 일 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물재배기'를 공개한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채소의 성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물재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은 채소를 재배하는 단계마다 유용한 정보와 수확 시기 등도 알려준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차별화된 생활가전 기술을 집약시킨 프리미엄 식물

현대자동차

"인간 중심의 도시 만들자" 혁신적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개

현대차는 CES에서 혁신적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한다. 플라잉카와 자율주행 셔틀을 묶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가 핵심이다. 현대차는 도시 교통수단의 운영체제(OS)를 통해 컨트롤되는 이 운

CES에 처음 참가하는 두산그룹은 무인 자동화 건설 솔루션과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을 전시한다. 수소연료전지 드론은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해 20~30분에 불과한 배터리형 드론의 한계를 극복했다. DMI는 전시회 기간 중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소연료전지 드론 출시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두산그룹

'20~30분 배터리형' 한계 극복 '2시간 비행' 수소전지 드론 발표

두산 관계자는 "이번 CES에서는 두산의 미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면서 두산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선보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여를 지향하는 두산의 목표를 향해 각 분야에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삼성전자가 공개할 예정인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우수 과제도 미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다.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과제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전면 카메라를 활용한 가상 키보드 솔루션 '셀피타입' △종이에 밀줄 그은 글을 스캔·검색해주는 디지털로 관리하는 스마트형광펜 '하일러' 등이다.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 출신 스타트업 4곳의 전시 참가도 지원한다.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반려 로봇을 만드는 '서큘러스'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트' △카메라를 통해 제스처로 사물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브이더치' △영상·음성·문자 채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다자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무디' 등이다.

송영록 기자 syr@

2020년 새해에도 가족의 건강은 베콤씨로!
한 끼의 완성
베콤씨®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유한양행

※본 광고는 2019-11월 30일 기준이며, 본 광고에 실린 내용은 유한양행의 영업 비밀로 취급되며, 무단으로 복제·배포·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美증시 ‘환호’...세계 경제 ‘산뜻한 출발’

연초부터 美·中 1단계 합의 서명
신기록 행진 뉴욕증시에 ‘훈풍’
국제유가도 3년 만에 최고치
글로벌 경기부진 탈출 ‘신호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과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2010년대의 마지막 해를 화려하게 마감했다. 여기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그동안 최대 불확실 요인으로 꼽혀온 미·중 무역 분쟁을 일단락지은 역사적인 이벤트가 예정되면서 세계 경제가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미국 증시의 주요 3대 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20~30% 급등했다. 국제유가(WTI 기준)는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고, 금값 역시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제 시장이 기록적인 성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발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1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장 17개월간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무역 전쟁의 휴전이 확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미·중 1단계 합의가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리라 전망한 바 있다.

불안한 출발을 딛고 ‘반전 드라마’를 썼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 트레이더가 2020년 새해를 기념하는 안경을 쓰고 웃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와는 다른 출발이다. 2019년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뉴욕증시는 전년 말부터 이어지던 ‘R(Recession·침체)’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아무런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우려에 따라 작년 뉴욕증시는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는 기우였다. 다우지수는 2019년 22.3% 상승하면서 201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S&P500지수 역시 연간 28.7% 오르면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S&P500지수는 2019년에 무려 35차례나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연간 35.2% 급등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나스닥지수는 작년에 여러 차례 새로운 역사를 썼다. 6년 만에 최

대 상승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지난달 26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 또 최근에는 ‘닷컴버블’ 당시인 1998년 이후 가장 기록인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R의 공포가 완화한 데다 장장 2년간 세계 경제를 짓누르던 미·중 무역 전쟁도 합의점을 찾게 됐다. 아울러 세 차례에 걸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기술주의 질주가 맞물리면서 뉴욕 증

시에 훈풍이 불었다.

CNBC방송은 지난 한 해 뉴욕증시의 추이를 두고 “강세장은 우려의 벽(Wall of Worry)을 타고 오른다”는 오래된 월가의 격언을 또 한 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우려와 걱정이 클 경우, 실제 상황이 우려만큼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만 하면 오히려 안도감에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 유가와 금값도 작년은 기록적인 해

였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가 34% 상승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3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금값은 연간 기준으로 18% 급등하면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산유국들의 감산 규모 확대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앞서 지난달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2020년 3월까지 하루 5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韓수출 10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 “신시장 개척·구조 개선, 반등 총력”

2019년 수출입동향

지난해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2018년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초라해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반등 신호는 나타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수출 감소폭이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개선됐으며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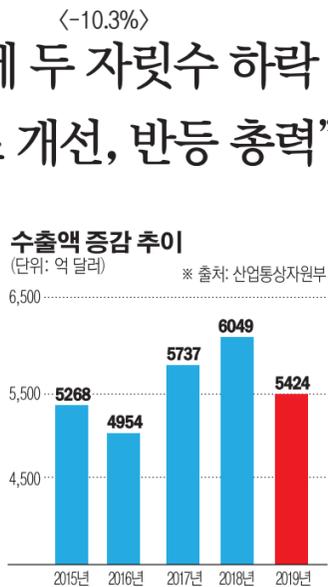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542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출 부진에 대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107억 달러, 반도체 하강기(다운사이클)로 328억 달러, 유가 하락으로 134억 달러의 수출 감소분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감소분인 625억 달러의 91.0%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수출이 부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수출 구조 개선의 미래를 엿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전체 수출은 줄었지만 수출 물량은 0.3% 증가했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자동차는 5.3%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고 바이오·헬스



(8.5%), 2차전지(2.7%) 등 신산업은 주력 품목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성장했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이 미국과 중국 등 주력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신남방 지역으로의 수출은 사상 최초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돌파했으며 신북방 역시 23.3% 증가하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늘었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이 3.3% 증가하며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바뀐 점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새해 첫 행보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아 “올해 수출 정책은 단기 수출 활력 회복과 함께 소재부품 장비의 글로벌화, 견고한 수출구조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점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지원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다. 노승길 기자 noga813@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들리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동을 창조하는 기술 -

새해에도 LS는 당신 가까에서
최고의 역량과 존중의 파트너십으로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황교안 당대표, 니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① 이념 갈등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제14차 검찰개혁-공수처 설치-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피켓과 풍선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나만 옳다” 생각 버리고 대화·타협 민주주의의 복원을

인터뷰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율(사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좌우를 떠나 국회가 일단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룰에 맞춰 정치 싸움을 하되 소수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권력을 가진 쪽이 국회를 존중하지 못했다”며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

통령은 ‘국민 통합’이란 시대적 요구에 잘 맞는 적임자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부 수장 출신을 총리로 발탁한 것은 ‘삼권 분립 훼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신 교수는 “국회의장이었던 정 전 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의회를 사실 우습게 안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간다’는 식의 모습에서는 국회가 최악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율린 신 교수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 문제도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시절 손학규 대표는 오 원내대표에 대해 사보임을 결정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승인했다. 이는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혁안이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신 교수는 “반대할 것 같은 의원은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할 것 같은 의원은 보임시킨 것은 선거의 본래 뜻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도 신

교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배제됐다”면서 “민주주의는 가치의 문제다. 여야가 가치에 충실하면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으로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별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것이라. 신 교수는 “국민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여야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회기 결정 안건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거법 원안대로 올리겠다 하면 사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한국당에 불리하지 않다. 원안대로 올리면 호남 쪽 지역구를 둔 의원이나 다른 지역 의원들 자체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민주당에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지

만, 민주당 입장에서선 그러할 것”이라며 “집권 4년 차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국민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보수는 성장을 앞세워 민생을 외면하고, 진보는 표심을 겨냥한 복지 표플리즘

선거법 개정 협상선 국민 소외 자리 얻으려는 여야 싸움만 ‘21대 총선’ 민주당에 쉽지 않은 게임 될 것

에 몰두하고 있던 비판에 대해 신 교수는 “여야 모두 ‘자신만 옳다’는 ‘절대 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절대선에서 벗어난 중간 지점이 중요하다. ‘이 사람 의견도 맞고 저 사람 의견도 맞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사법개혁 특위 사보임
한국당 제외 예산안 통과...
민주주의 원칙 어긋나

민주당은 청와대를 무조건 쫓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국회는 좌우 이념 갈등이 문제였다면 20대 국회는 그것보다 정치적 권력의 핵심이 의회를 존중하지 못한 게 크다”고 분석했다.

입법부가 존중받지 못한 사례 중 하나로 신 교수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것을 꼽았다. 문재인 대

종교전쟁 같은 이념 대립... 대화해야 할 광장, 갈등의 상징으로

국민들 자신과 같은 이념 가진 정치지도자 따르고 정치인들도 타협 대신 종교전쟁 치르듯 거리로... 목숨 공유하는 새 ‘공명지조’ 2019년 사자성어 꼽혀



대학교수들이 매년 꼽는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이 있다. 그해의 한국사회를 압축해 보여주는 올해의 사자성어에서 2019년에 교수들이 선택한 단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다. 공명지조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달린 상상 속의 새를 가리키는 말로 불교경전에 등장한다.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밤에 일어나는데, 이 중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쫓겨 먹는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다른 한 머리는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었고,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어 버리고 말았다.

한쪽을 죽이면 자신에게 득이 될 것으로 믿지만 사실은 같이 죽는 공동운명체라는 교훈이 담긴 사자성어다. 교수들이 공명지조를 택한 이유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극심한 이념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 교수신문에 따르면 최재욱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각 진영의 정의와 도덕성이 독선적으로 폭주하려고 해 자기검열과 자아비판의 건강한 힘을 상실했다”며 “상생의 비전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명지조를 택한 다른 교수들도 “진정한 보수와 진보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서울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광화문 광장은 공명지조의 교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광장은 갈

등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살기운 대화 대신 분노와 비난의 음역대로 채워진 확성기는 귀를 막은 행인을 지하로, 골목으로 내쫓는 모순의 도구가 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좌우 갈등이 극심해진 원인을 이념이 종교화하고 있는 현상에서 찾는다. 자신과 이념이 같은 정치지도자를 마치 종교지도자처럼 숭배하는 군중들이 존재하고, 정치인들 스스로도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인 절차 대신 종교전쟁을 치르듯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를 둘러싼 ‘배신자’ 논란은 종교처럼 절대화한 이념이나 확신이 가진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진보 논객인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진보의 자성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진보 진영으로부터 종교적 파문과도 같은 공격을 받는 중이

다.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니체가 겪은 고초를 연상케 할 정도다. 니체는 신과 인간이라는 이분법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자 이상이던 당시 유럽의 관념에 도전한 이 말 한마디로 톨스토이 등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념 대결이 지속돼 결국 종교전쟁 같은 극단적 대결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대 한 교수는 “성전(聖戰)에는 마녀사냥과 순교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안 ‘신을 위해 저자를 죽이라’는 선동이 어지고 나중에는 ‘신을 위해 당신이 죽어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죽어’ 단계인데,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죽어’가 될 테니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3低'는 글로벌 뉴노멀... 세계경제 보호무역에 휘청

②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시대

저성장과 저금리, 저물가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제조업·소비재 중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적으로 투자와 생산, 교역이 위축되고, 선진국들의 저출산·고령화는 수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미국 등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대응하면서 경기회복을 추가로 제약하는 상황이다.

◇3.6%→3.0%→?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최저치다. 국가별로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다. IMF는 지난해와 올해 선진국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신흥개발도상국의 올해 전망도 기존(4.8%)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 경기부진과 무역갈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배경은 제조업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세계 교역량 둔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2018년 3.7%였던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이 지난해 1.2%, 올해 1.6%로

제조업 불황·무역전쟁 여파... 글로벌 교역량 크게 줄어 작년 세계 경제성장률 3.0%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 둔화, 물가·금리도 끌어내려... 한국도 '고군분투'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36개 회원국의 성장률도 2018년 2.3%에서 지난해 1.7%, 올해 1.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 추세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데에도 제조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수요가 위축되고, 노동력 확대가 제한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제조업의 대규모 물적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장 측면에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제조업을 대체하고 있지만, 물적 투자는 대체되지 않아 점진적으로 추가 투자와 생산이 둔화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요가 위축돼도 교역을 통해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지만, 국가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선진국에서 초과생산된 소비재를 사들이던 개도국들은 더 이상 수입을 늘릴 필요가 없게 됐다"며 "선진국은 수출이 줄면서 교역으로 이익을 보

기 어려워지고, 결국 기존에 수입하던 소비재의 가격을 높이고 이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사례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이다.

◇'뉴노멀' 된 저물가·저금리 = 성장률 둔화는 물가와 금리도 끌어내린다.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17년 2.3%, 2018년 2.6%(이상 연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1%대로 하락했다. 유로지역에선 9월부터 0%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저물가는 과거 저물가와 다소 다르다. 교역이 확대되던 시기에 선진국은 개도국에 인플레이션(고가 상품)을 수출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에 디플레이션(저가 상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물가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교역이 둔화하고, 선진국들은 수입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최근 저물가가 순전히 수요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반까진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역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수요가 제조업보다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게 최근 저물가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로 제조업 제품의 수요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이 원가 절감에 목매는 것도 물가를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물가는 저금리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상황에 금리가 고정돼 있다면, 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금리는 높아져서다. 이는 추가적인 투자·소비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명목 기준금리가 집계된 OECD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의 기준금리가 1% 미만이었다. 스위스(-0.75%) 등 3개국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다.

◇한국도 3저...확장재정으로 돌파 = 한국도 여타 선진국들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성장률은 2.0% 안팎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목표치였던 2.4~2.5%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지난해 "2020년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올해 목표치는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설

비투자자 수출 반등에도 소비 부진과 건설 투자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물가와 금리도 같은 추세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역대 최저치다.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은 단연 저물가다. 지난해 9월 월간 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까지 0%대 저물가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도 안정목표(2.0%)를 밑도는 1.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추가 금리 인하를 권고하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공통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금리 인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부분의 수요 확대는 제한적인 만큼, 재정이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2년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은 51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했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올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확장재정 땀질만 하다 '제2 베네수엘라' 될라 경제구조 개혁 통해 새 성장동력 만들어야'

전문가 "중장기 대책 시급"

"지금과 같은 확장 재정을 이어간다면 결국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베네수엘라처럼 될 우려도 있다."

한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들이 나왔다. 저성장과 저물가, 저금리 등 3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는 한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았다. 하지만 원유가격의 하락에 1999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이어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무차별 복지 정책들로 결국 2017년 베네수엘라는 디플트를 선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며 "올해부터는 재정 투입을 낮춰야 하고, 만약 확장 재정이 이어진다면 베네수엘라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보다 단기적 확장 재정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은 초단기 해법으로 당장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양책"이라며 "올해에도 확장 재

정이 이어질 텐데, 이 적자는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의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내수 시장을 살리는 데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정부가 저성장과 저물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구조 개혁이다. 전통의 제조업이 몰락한 상황에서 신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고 있다. 카라카스/연합뉴스

강 교수는 "1990년대 경공업에서 중화학·전자 산업 구조까지는 넘어왔지만 이후 산업 구조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선진국형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정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미국 정권 교체에 따라 세계 시장의 분위기도 급격히 변화할 것이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며 "단기 대책으로는 신산업을 진출을 막는 규제를 손봐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손꼽았다.

강 교수는 "이미 도입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수준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도입한 것이 문제"라며 "노동과 더불어 교육 개혁 등은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가 지금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민주 “총선 승리해 재집권”… 한국 “文정권 폭주 막아달라”

여야 신년인사... 총선 필승 다짐
정의당 “청년과 낡은 정치 교체”
평화당 “튼튼한 평화 오길 기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은 1일 신년 인사회 등을 통해 새해를 맞는 각오를 다지고 4월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최근 발표한 총선 영입 인제 1·2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원종진 씨도 함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올해 우리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라며 “잘 대비해서 총선에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승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네 번째) 대표와 이인영(다섯 번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국민과 더불어 총선승리’라고 쓰인 대형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진격하겠다. 총선 승리로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겠다”며 “총선 승리가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4월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인사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

내대표, 김재원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박관용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3년이 다 돼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며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니 우리가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앞줄 왼쪽 다섯 번째) 대표와 심재철(네 번째) 원내대표 등이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자유한국당 총선입승’이라고 적힌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작년 연말 예산 날치기를 비롯해 선거법·공수처법 양대 약법 날치기는 우리에게 참담함을 안겨주고 국민을 실망하게 했지만 주저앉을 수 없다”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결연한 마음, 결사항전 자세로 올해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각각 신년인사

회를 열고 새해를 맞는 각오를 다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년들과 함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역동적인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정몽영 대표는 “올해는 흔들리는 평화가 아닌 튼튼하게 자리 잡은 평화가 다가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김정은 “새 전략무기” 위협... 트럼프 “비핵화 약속 믿어”

‘데드 라인’ 종료 첫날 신경전
北, 압박 동시에 대화 가능성 열어
폼페이오 “北 평화와 번영 택하길”

북한이 정한 ‘데드 라인’을 넘긴 첫날인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각 압박과 회유성 발언을 통해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비핵화 약속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예고했다. 다만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의 보고에서 “미국이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대미정책 입장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역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역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대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매우 좋은 관계’임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말을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다른 경로를 택하길 희망한다”며 “그가 충돌과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고성 메시지도 발신했다. 그는 CBS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일환 기자 whan@

노인 45만명에 ‘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개 사업 통합... 안전지원·사회참여 등 요구 맞춰 제공

올해부터 노인돌봄사업 대상자가 45만 명으로 늘어난다. 서비스도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에서 욕구별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2일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되는 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이다.

우선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35만 명에서 올해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된다.

서비스 내용 면에선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에서 제공

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마다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기관이 돼 인구·면적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 밖에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 평생교육 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되고,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해선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기존 노인돌봄사업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편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 정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해 개선 필요사항과 어려움을 들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문 대통령 신년 산행서 몸싸움 등 ‘작은 소동’

민중당 당원 “이석기 석방” 외치자 靑 관계자 제지

“이석기 의원 특별사면 왜 빠졌습니까.”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마산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나 진행한 신년 산행에서 고성아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사진). 2020 신년 특별사면에서 배제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민중당 당원들의 외침에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면서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과 마주친 8명의 민중당 중앙지역위원회당원들은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 주십시오”, “이석기 의원 특별사면 왜 반대하셨습니까”, “벌써 7년째입니다” 등의 구호와 질문을 외쳤으나, 문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외치는 성치화 민중당 중앙구급 국회의원 후보의 몸을 밀치고 입



을 틀어막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으로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여기에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

합되면서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1년 유죄가 확정됐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다. 이 밖에도 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반면,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되자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이 확정돼 형기가 2년여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했으나 이 전 의원은 세 번의 특사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레몬법’ 시행 후 75건 중재 신청... 車 교환·환불 5건

지난해 첫 도입된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통해 5건의 교환·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은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신차로써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지는 2회, 일반 하지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75

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돼 그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 나머지 4건은 20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 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낙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 구제가 이뤄졌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차 교환·환불 e난독(www.car.go.kr)’이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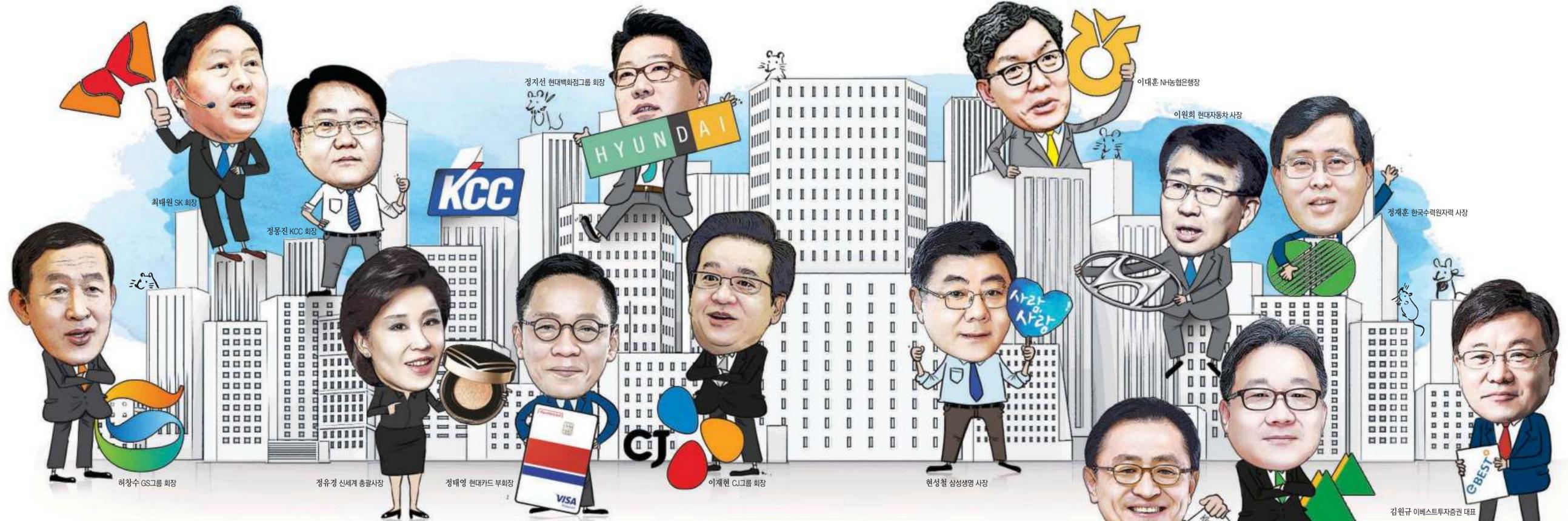
2020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LG가 소망하는 건
 고객 여러분의 더 행복한 한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영리한 퍼스트무버...

‘한국 경제 新르네상스’ 이끌 주역들



주요 쥐띠 CEO ※기다순

1948	허창수 GS그룹 회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권중원 흥국화재 사장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사장 김영규 KB투자증권 사장 김영규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김철 양캐미칼 사장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형중 현대백화점 사장 박성철 한전KDN 사장 손주석 한국식품관리원 이사장 여승준 한화생명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1960	이대훈 NH농협은행 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이재원 삼성전기 사장 이재원 CJ그룹 회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전해상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정몽진 KCC 회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최성민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허창수 KB생명 사장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홍재원 NH농협생명 사장 황규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972	안지용 동진코웨이 부사장 이재원 부분현대생명 사장 임종문 한미사이언스 사장 정유경 신세계호텔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허은철 GC녹십자 사장

일러스트 손민경 기자 sssnrk@

2020

‘혁신 아이콘’ 7인 오너

쥐는 십이지(十二支)의 첫 번째 동물이다. 옛날 육활상제가 동물들을 연회장으로 호출하면서 순서대로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열심히 훈련한 소가 달리기 선두에 있었지만 소 등에 물레 타고 있던 쥐가 결승선에서 먼저 푹푹 뛰어내려 1등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쥐는 예로부터 영리함을 상징한다. 특히 쥐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존력이 높은 동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 속에 빠져 있다. 재계 오너가서 쥐띠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영과 투자에서 영리함과 지혜, 생존능력을 발휘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길 기대해 본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 활약을 예고한 쥐띠 오너가(家)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위기에 빠르게 대처해 조직을 풍요롭게 성장시키는 동시에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쥐띠에 대한 경영학적 풀이처럼 안정에 기반한 혁신을 이끌어갈 7인의 오너들을 만나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표적인 ‘혁신’의 아이콘이다. 1960년생인 최 회장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다는 뻔한 공식을 깨트려 버리며 ‘사회적 가치·행복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화두를 던지며 SK그룹의 지향점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다.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던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가치를 돌려줄 수 있을지도 궁리하도록 ‘더블 보텀 라인(DBL)’ 경영을 선언한 공리하도록 했다. 최 회장은 “행복해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행복 경영의 가설’을 소개한 뒤 “이 가설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들이 지속적으로 전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올해 SK그룹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구성원의 행복 증진에 집중해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허창수 GS 명예회장 겸 GS건설 회장 역시 GS사(社)의 다음 챌저를 연 인물이다. 1948년생인 그는 “지난 15년간 ‘가치 넘버1 GS’를 일궈내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나의 소임은 다했다”며 지난해 열린 그룹 회장직 퇴임을 발표했다. 그룹의 변화를 이끄기 위해 ‘젊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 회장의 과감한 결단은 2020년,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그룹 회장직을 내놓았지만 최 회장은 앞으로도 기업인으로, 재계 큰 어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GS건설 경영에 집중하는 동시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재계의 큰 어른’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 전경련을 통해 민간 외교관을 펼치며 우리 기업에 힘을 보태던 최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전경련이 민간 경제외교단체와 싱크 탱크로서 탐바꿈하도록 전력을 쏟는다는 각오다. 빠른 판단력으로 꺾직한 인수·합병(M&A)을 성사 시키며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쥐띠 오너도 있다. 바로 정몽진 KCC 회장 겸 이재원 CJ 회장이 주인공이다. 1960년생인 정 회장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분주히 확보하던 중 지난해 국내 기업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해외 M&A에 성공했다. “KCC의 미래는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기술 역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던 정 회장이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모멘텀을 인수하며 KCC를 글로벌 톱3 실리콘 기업으로 끌어올렸다.

정 회장은 올해 기존 건재 중심이었던 KCC를 전 세계에 연구, 생산, 판매 네트워크를 둔 글로벌 초정밀화학기업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위기 속에서 점포 리뉴얼로 내실을 다졌다. 지난해 1월 천호점 리빙 매장을 2개로 늘리는 리뉴얼을 실시했고, 신촌점 재단장도 끝냈다. 같은 해 11월 시작한 면세점 사업도 본격적으로 돛을 올렸다. 지난해 1분기 236억 원 영업손실을, 2분기 194억 원에 이어 3분기에 171억 원 적자로 폭을 줄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2조 원에 품었다. 쉬완스의 인수는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닌 문화의 결합으로 해석된다. 한식과 미국식의 결합을 통한 한식 세계화의 선봉에 선 것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미국 뉴욕 맨해튼 북벨라센터에 ‘비비고 QSR(Quick Service Restaurant)’ 팝업’도 개점했다. 인수한 해외기업과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내는 경영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쉬완스의 물류거점들을 통해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인 미국에서 점유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국내 식품업계 ‘망형’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

최태원 사회적 가치 창출 ‘행복 전도사’

허창수 전경련 이끌어 재계 망형 역할

정몽진 건재제→초정밀화학기업 도약

이재원 쉬완스 인수 한식 세계화 가속

정지선 아웃렛·면세사업 수익성 확보

정유경 패션사업 강화 위해 ‘조직개편’

정태영 동남아·유럽 진출+성장 준비

.....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는 유통업계에는 1972년생 오너들이 발 빠르게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위기 속에서 점포 리뉴얼로 내실을 다졌다. 지난해 1월 천호점 리빙 매장을 2개로 늘리는 리뉴얼을 실시했고, 신촌점 재단장도 끝냈다. 같은 해 11월 시작한 면세점 사업도 본격적으로 돛을 올렸다. 지난해 1분기 236억 원 영업손실을, 2분기 194억 원에 이어 3분기에 171억 원 적자로 폭을 줄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올해는 현대프리티미어아웃렛 대전점과 남양주점을 차례로 개점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확장이 임무로 주어졌다. 서울 강북 도심에 두터면세점 인수 후 재개장도 앞두고 있다. 2021년 초에는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으로 추진하는 ‘여의도점’ 개점도 예정돼 있어 정 회장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정유경 신세계총괄 사장은 패션사업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인수한 메이크업 브랜드 ‘비디비디’의 성공을 일궈냈다. 2012년 인수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비디비디 매출을 100배 끌어올리며 2000억 원의 메가브랜드로 성장시켰다. 또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입점까지 성공하며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 총괄사장은 비디비디 외에도 산티마리아 노벨라 등 각종 해외 브랜드 판권을 확보해 화장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췄고, 2018년 자체 브랜드 ‘연작’ 론칭에 이어 올해 ‘로이비’(LOIVIE) 출시도 앞두고 있다. 새해에는 본업인 패션 사업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패션 부문’을 신설했다. 수입 브랜드 의존도를 낮추고 ‘보보’, ‘지컷’ 등 자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자회사인 톱보이가 2015년 영업이익이 67억 원에서 2018년 29억 원으로 역성장해 해외에서 터닝포인트 기회를 찾을 방침이다.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부회장은 카드업계 최장수 경영인이자 유일한 오너 경영인으로 올해도 파격 행보를 선보일 예정이다.

1960년생인 정 부회장은 작년 대한항공의 PLCC 상품 제휴와 코스트코 독점 계약, 현대카드 상장 절차 진행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특히, 현대카드가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에 성공했을 때 페이스북에 소감을 남기고,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직접 현대카드 계약 상담에 나서는 모습을 알려 눈길을 끌었다. 또 베트남 현지 여신금융사 지분을 인수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유럽은 현대캐피탈뱅크유럽 독자법인 진출에 성공해 해외시장 확대에도 나섰다. 올해도 정 부회장은 해외시장 진출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본격적인 성장절차 돌입과 함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동남아’를 할 전망이다. 아울러 상위권 카드사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현대카드를 데이터 전문 회사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2020

‘성장 견인차’ 7인 전문경영인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 경자(庚子)년을 맞아 ‘쥐띠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주목받고 있다. 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본능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동물이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CEO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올 한 해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듯 1960년생 쥐띠 CEO 7인을 들여다봤다. 눈에 띄는 실적으로 올해 성과가 기대되는 CEO는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다.

지난해 3월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사장)로 취임한 김 사장은 과거 LG투자증권 최연소 지점장으로 오르는 등 증권업계에서 일찌감치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사장은 취임 당시 4000억 원 규모이던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을 임기 내 1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본 규모는 2018년 4037억 원에서 2019년 3분기 기준 5021억 원까지 성장했다. 2013년 3093억 원에서 2018년 4000억 원으로 가는 데까지 5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한 가파른 성장세다.

IB부문의 성장도 돋보인다. 2018년 134억 원이던 인수 및 주선 수수료는 2019년 상반기(144억 원)에 이미 넘어섰다. 특히 회사 설립 후 최대인 3700억 원 규모의 ‘수인 하늘채 더 퍼스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단독 주관해 지난해 자금 조달을 마쳤다. 회사는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업무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진행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룬 공을 인정받아 농협은행 출범 후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했다. 농협금융 계열사 CEO는 기본 임기 1년에 1년 연임이 관례다. 3년간 임기를 이어가는 것은 2012년 농협의 신장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 처음이다. 이 행장은 2017년 은행장으로 선임된 이후 연임돼 은행장을 맡아왔다. 농협은행의 2018년 순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3·4분기 누적 순이익도 1조192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행장은 지난해 2년간 ‘NH디지털혁신캠퍼스’ 사업을 펼치는 등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왔다. 이 행장은 올해 디지털 전환과 해외 사업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행장은 평소 ‘디지털 익스플로러’라고 쓰인 명함을 들고 다닐 정도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진출 관련해서 이 행장은 올해 해외 점포 증가 속도를 다른 은행들보다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목표했다.

빠른 결단력과 과감한 업무 추진력으로 변화를 이끌어 온 CEO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

김원규 임기 내 자기자본 1兆 달성 속도

이대훈 해외점포 확대·디지털 전환 집중

현성철 장래 이익 중심 상품전략 추진

정재훈 신재생에너지 선도 종합기업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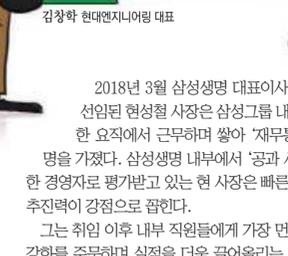
이원희 국내의 투자자 소통 리스크 제거

유상호 성공경영 노하우 후배들에 전수

김창학 화공플랜트 이어 주택사업 박차

.....

경신했다. 이 행장은 지난 2년간 ‘NH디지털혁신캠퍼스’ 사업을 펼치는 등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왔다. 이 행장은 올해 디지털 전환과 해외 사업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행장은 평소 ‘디지털 익스플로러’라고 쓰인 명함을 들고 다닐 정도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진출 관련해서 이 행장은 올해 해외 점포 증가 속도를 다른 은행들보다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목표했다. 빠른 결단력과 과감한 업무 추진력으로 변화를 이끌어 온 CEO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

2018년 3월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현성철 사장은 삼성그룹 내에서 다양한 요직에서 근무하며 쌓아 ‘재무통’이란 별명을 가졌다. 삼성생명 내부에서 ‘공과 사’가 분명한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는 현 사장은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취임 이후 내부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영업력 강화를 주문하며 실적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삼성생명의 상품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즉각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삼성생명의 3분기 신계약가치는 3204억 원으로 1년 만에 4.8% 증가했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도 17.8% 증가했다. 신계약가치는 보험계약 체결 후 체제 보험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계산해 장래 이익으로 환산한 가치로 장래 이익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다. 삼성생명의 경우 건강상해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가 늘면서 신계약 가치가 크게 개선됐다.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오른 정 사장의 강점은 결단력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업무 추진이다. 이 같은 업무 스타일 때문에 공직에 있을 때 ‘독일병장’, ‘백상’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정 사장은 한수원 수장을 맡은 지 1년 만에 신형 경수 ‘APR1400’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미국에서 미국의 노형이 설계인증을 받은 것은 한수원이 처음이다. 정 사장은 올해 원전 업계를 이끌어가던 만명에서 신장생태니지 분야를 선도하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소통과 사람 중심 경영으로 입지를 다진 대표적 CEO는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겸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이다.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은 주요 기관투자자와 소통하며 현대차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경영 리스크가 존재할 때마다 곧바로 국내외 주요 투자자에게 직접 나서 향후 전망과 비전, 리스크 해결을 위한 현대차의 전략 등을 피력했다. 지난해 2월 ‘CEO 인베스트 데이’를 직접 주관하며 금융투자업계



김 대표의 취임 첫해부터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등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특히 기본설계를 수주했다는 점이 큰 성과다. 기본설계는 외국 선진 건설사가 독점하는 고부가가치 분야다. 무려 30여 년간 화공플랜트 분야에 집중해 온 김 대표의 ‘독심’이 빛을 발했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도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다수 추진했던 주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9월 마감 예정인 걸림1구역의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참여했다.

.....

김창학 화공플랜트 이어 주택사업 박차

김 대표의 취임 첫해부터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등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특히 기본설계를 수주했다는 점이 큰 성과다. 기본설계는 외국 선진 건설사가 독점하는 고부가가치 분야다. 무려 30여 년간 화공플랜트 분야에 집중해 온 김 대표의 ‘독심’이 빛을 발했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도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다수 추진했던 주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9월 마감 예정인 걸림1구역의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참여했다.

새로운 10년 “해피 뉴 이어”...다양한 지구촌 새해맞이



BTS ‘뉴욕 공연’ 세계적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새해맞이 무대에서 공연을 마친 후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욕/UPI연합뉴스



‘볼 드랍’ 인생샷 찰각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새해맞이 ‘볼 드랍’ 행사에서 크리스탈 볼이 떨어지며 2020년 새해가 밝았음을 알리자 사람들이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브라질 화려한 불꽃놀이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비치에서 열린 새해맞이 연례 행사에서 여성들이 불꽃놀이를 즐기며 새해를 축하하고 있다. 리우 데 자네이루/AFP연합뉴스

첩보영화 ‘007’ 뺨친 곤 前 회장의 도피극

〈르노·닛산〉

악기 상자에 몸 숨겨 日 탈출...日·레바논 외교갈등 비화 조짐
범죄인 인도조약 없는 데다 레바논 국민적 영웅·정부신뢰 돈독
이스라엘공항 총기사건 때도 일본 신병 인도 요청 거부한 적도

해외 도항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됐던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회장이 몰래 레바논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건이 일본과 레바논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탈출이 곤 전 회장의 부인인 캐럴의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하에 수주 전부터 준비됐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이 머물던 일본 도쿄 자택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24시간 내내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했기 때문에 이를 따돌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레바논 현지 TV ‘MTV’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탈출극에 이용했다. 며칠 전 자택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는데, 당시 오케스트라 그룹을 가장한 민간 경비업체 사람들이 돌아갈 때 곤 전 회장이 악기를 운반하는 상자에 몸을 숨겨 집을 빠져나갔고, 거기에서 오사카의 간사이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터키 이

스탄불로 날아갔다. 이스탄불에서는 미리 준비돼 있던 개인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에 도착, 프랑스 여권으로 입국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곤 전 회장이 레바논으로 들어갈 때 이미 이번 탈출극을 총 지휘한 아내 캐럴이 비행기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개인 비행기여도 일반 승객과 똑같은 출국 수속이 필요하다”며 “기록에서 곤 전 회장의 출국 방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곤 전 회장은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보안당국은 “곤 전 회장이 합법적으로 레바논에 입국했고 어떤 법적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일본 당국은 해외 도항이 금지되어 있던 곤 전 회장이 어떻게 출국 심사 등의 그물을 빠져나와 레바논까지 이동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 나카 준이치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나도



지난해 3월 6일 10억 엔(약 106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도쿄구치소에서 108일 만에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당시 그는 취재진을 따돌리려 작업복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나오다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다. 도쿄/AP연합뉴스

아닌 밤중에 흥두깨 같은 상황에 매우 놀라고 있다”며 관여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큰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단 출국은) 어렵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마치 첩보영화 ‘007’ 시리즈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 이번 사건이 자칫 일본과 레바논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석 중 피고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할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신병 확보

에 나선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곤 전 회장과 레바논의 관계가 워낙 끈끈해서다. 브라질 서부의 레바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곤은 유년기부터 고교 시절까지 레바논에서 보냈다. 국적이 없고 있다. 레바논에서는 곤을 ‘해외에서 성공한 국민적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레바논 정부도 곤에 대해 남다른 신뢰를 갖고 있다. 일본 검찰이 곤 전 회장을 체포했을 때 레바논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2018년 11월 곤 전 회장이 체포된 후 레바논 정부는 곧바로 레바논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장기 구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고, 레바논 대사관 관계자가 자주 면회를 하는가 하면 취재진에게 곤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곤의 신병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일본과 레바논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 텔아비브국제공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일본적군’ 일원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했을 때 레바논이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번 일본의 곤 전 회장 신병 인도 요청에 레바논 정부가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보는 이유다. 배수경 기자 sue6870@

美 압박 뚫은 화웨이 작년 매출 18% ‘쑥’

〈141조원〉

슈 회장 “을 최우선 전략은 생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테크놀로지가 작년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8%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릭 슈 화웨이 순환 회장은 이날 직원과 고객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 늘어난 8500억 위안(약 141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년도 매출 증가율(19.5%)보다 낮아지고, 매출액도 당초 예상치에 미달하는 했으나 ‘블랙리스트’ 선정 등 미국의 제재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작년 화웨이가 나름 선방하기는 했어도 미국의 제재는 화웨이의 성장에 지속적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슈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처럼 빠른 성장을 이룰 것 같지는 않다”며 올해 화웨이의 최우선 전략을 ‘생존’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 환경이 더 복잡해지고 세계 경제의 하락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압박은 화웨이의 생존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술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뱃켓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고삐 당긴 수장들... 당면 과제는 ‘신뢰 회복’

신년사로 본 금융권 키워드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금융회사 수장들이 업무 디지털화와 고객 신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비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전환에 고삐를 당기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떨어진 고객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1등 종합금융그룹을 달성하자”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그룹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한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무엇보다 굳건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금융그룹을 만들기 위해 혁신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 침체, 오픈뱅킹 시행에 따른 금융사간 경쟁 격화,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위기 상황인 만큼 모든 임직원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픈뱅킹 등 경쟁 심화
고객 신뢰 · 혁신 밑바탕
1등 종합금융그룹 달성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글로벌 금융혁신 시대
모든 프로세스 디지털화
미래 성장 위한 생존 전략

자동심사시스템 도입 등
신업무 환경 구축 집중
고객 금융서비스 질 향상

디지털 시대 ‘니즈’ 변화
새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최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공정한 무역을 말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간다”며 “비윤리적 기업의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금융회사에겐 이러한 기업에 대출과 투자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빗발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님, 직원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새해 첫날부터 100여 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울지로 신사옥 24층에 새롭게 오픈하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신년 계획을 세웠다. 통상 신년 산행 일출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다.

지 행장은 “사용자 중심의 공간 변화는 끊임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며 “2020년을 KEB하나은행의 스마트워크 정착의 해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해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상품과 서비스 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 인도 등 이머징 시장에서 금융의 파괴적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대의 변혁 앞에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기회인 동시에 생존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도 새해 핵심 과제로 ‘디지털화’를 꼽았다. 방 행장은 “프로

젝트 금융을 주로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전면적 디지털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디지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디지털 워크 플레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자동심사시스템 도입 등 업무 디지털화를 확대해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자”고 주문했다.

시중은행을 대표하는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 시대의 고객은 고객 경험에 대한 욕구가 크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편리성을 찾아 과감히 이동하는 성향이 있다”며 “이에 따라 고객 특성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칩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금융위, 中企 설비투자 4.5조 수혈

산은·기은 각각 2조... 수은 5000억 투입

이르면 이달 말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상품이 출시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이르면 이달 말에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올 한 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 2조 원, 수출입은행에서 5000억 원이 투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보니 계약서 구비 등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1월 말쯤 돼야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KB손보, 후유장애 ‘기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KB손해보험은 새해 첫 상품으로 종합건강보험인 ‘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의 수명에 맞춰 질병과 상해, 배상책임 등 종합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사망, 후유장애 및 각종 진단비 등 평생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다.

주요 특징은 5대 납입면제 사유인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손보 업계 최초로 기납입보험료를 되돌려준다. 기존에는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만 면제됐다. 이 상품에서는 추가로 납입면제 사유 발생 전까지 납입된 보장보험료도 전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고객이 한층 더 강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각종 신규 담보를 개발해 보장을 확대했다. 101대 질병 수술비 담보 개발을 통해 수술비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기존 재진단암 진단비에서 제외됐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및 전립선암에 대해 진단비를 추가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제네시스 GV80 시작으로...벽두부터 신차 쏟아진다



현대기아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달 출시를 앞두고 1일 공개한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 아래 사진은 르노삼성이 1분기 출시를 예고한 쿠페형 SUV 모델 'XM3'. 사진제공 각사

자동차 업체들이 경자년 벽두부터 신차 경쟁을 예고했다.

제네시스의 GV80을 비롯해 쏘렌토·XM3 등 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들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인 가운데 G80·아반떼·SM6 등 세단도 연초에 새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1일 첫 번째 대형 SUV 모델인 GV80의 차 안팎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다. 디젤 3.0, 가솔린 3.5 터보, 가솔린 2.5 터보 등 고출력 엔진이 쓰였다.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콘셉트카로 첫선을 보인 이후 2년 반 만에 베일을 벗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꾸준히 성장 중인 대형 SUV 시장에서 럭셔리 감성과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차별화된 가치를 담은 대형 SUV를 목표로 GV80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GV80은 이달 중국 내에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는 자사의 최고 인기 차종이자 세단인 G80 완전변경(플체인지) 모델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2013년 11월 2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G80 새 모델에 플래그십 세단 G90 디자인을 계승해 오각형 모양의 크레스트 그립과 4개 램프로 이뤄진 쿼드 램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준중형 대표 모델인 아반떼 완전

변경 신차도 상반기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2015년 11월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7세대 모델이다. 이번 신차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의 대표 SUV인 쏘렌토 신차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2015년 출시 후

차 조에, 소형 SUV인 QM3 완전변경 모델 등 신차를 선보인다.

중형세단 SM6와 상용차 르노 마스터의 부분변경 모델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지엠(GM)도 1분기에 준중형 SUV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내놓으며 SUV 시장 경쟁에 가세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자동차 시장이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는 SUV, 고급차 등의 성장에 힘입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는 자동차 업계의 저성장 우려 중에도 올해 SUV와 고급차, 전동차 등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UV는 소비자 선호도 상승과 신차 출시 증가의 영향으로 승용차 시장 내 판매 비중이 지난해 35.6%에서 올해 36.9%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급차도 신형 성장과 차급 다양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1027만 대에서 올해는 2.8% 증가한 1056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동차도 주요 업체가 전기차(BEV) 신 모델 출시를 늘리고, 유럽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성장세가 커지면서 29.3% 늘어난 55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자동차 산업이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SUV 공세 베일 벗은 GV80 이달 출시 쏘렌토·싼타페·XM3 줄줄이

세단의 반격 G80·아반떼 상반기 풀체인지 SM6 부분변경...모닝도 새단장

6년 만에 나오는 4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디자인이 크게 개선되고 2.5리터 가솔린 터보엔진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했다.

현대차 대표 SUV 쏘렌토는 부분변경 모델도 상반기 고객을 만난다. 기아차는 상반기 중에 모닝의 부분변경 모델을 발표, 최근 침체한 경차 시장 회복에 나선다.

르노삼성차도 1분기에 쿠페 스타일 SUV인 XM3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전기

SK네트웍스, 정부 주관 블록체인 직업교육 진행

“스마트 거래 기술 높게 평가” 한양대와 직무인증 과정 운영

SK네트웍스가 미래 역점 사업으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꼽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1일 종합상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네트웍스는 교육부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치업이란 대학생, 직장인, 구직자 등 성인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관련 분야에 특화된 기업과 대학교가 협력해 진행한다.

SK네트웍스가 맡은 분야는 ‘블록체인’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SK네트웍스와 교육부는 한양대학교와 함께 블록체인 분

야 핵심직무와 세부직무 능력을 검증하고, 블록체인 분야 이수자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종합상사 업무에서 벗어나 최근 렌탈 사업 등 신성장 영역을 넓히고 있는 SK네트웍스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 기준에 대해 “블록체인 원천기술보다는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교육의 핵심”이라며 “SK네트웍스가 역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스마트 계약’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스마트 계약이란 한마디로 자동화한 거래 체계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여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운송업자의 트럭에 부착한 GPS 장치가 블록체인에 GPS 정보를 보

내면, 스마트 계약은 목적지 여부를 확인, 자동으로 화물주의 계좌에서 운송업자의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는 식이다.

중간 계약 단계가 사라지는 만큼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SK네트웍스는 실제로 블록체인 플랫폼에 발을 들여놨다.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선보인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공동 운영권을 최근 확보한 것이다. SK네트웍스뿐만 아니라 LG전자, LG상사, GS홈쇼핑 등도 이 거버넌스 카운슬(GC)에 참여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매치업 업무협약과 관련해 “최근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SK네트웍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교육부와 함께 미래 기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김준 SK이노 사장 ‘인천석유화학 행복토크’ 김준(오른쪽)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새해 첫날 SK인천석유화학을 찾아 이 새해 첫날 SK인천석유화학 구성원들과 행복 토크도 진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박정원 회장 “초불확실성 시대, 선제 대응”

두산그룹 ‘무거운’ 신년사

“초불확실성의 시대지만,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앞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박정원(사진) 두산그룹 회장은 1일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해 올 한 해 중점을 뒤야 할 과제로 △주력 사업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극대화 △신사업의 본격 성장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성과의 사업화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선진시장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지정학적 불안도 여전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5G의 급속한 확산 같은 새로운 도전이 밀려오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실천사항으로 주력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극대화를 우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력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보다 많은 파이를 가져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



해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는 것도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에도 힘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그는 “연료전지, 협동로봇, 전자소재 등 우리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라며, “수소 관련 사업의 경우 각국의 초기 표준경쟁 단계부터 뛰어들어 시장을 선점해야 하고 협동로봇 사업은 물류, 서비스업 등으로 활용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넓혀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형 가스 터빈에 대해서는 “실증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작업의 결과를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높이자고도 부탁했다. 그는 “인프라코어의 ‘무인 자동화 건설현장 종합 관리 시스템’ 등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 CES에서 우리가 제시할 미래 모습을 앞당기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삼성 QLED 8K 전제품 ‘8K협회 인증’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2020년형 QLED 8K 전 제품에 대해 ‘8K협회’로부터 8K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받은 8K 인증은 △해상도 7680x4320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 600니트(nit) 이상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HDMI 2.1 적용 △압축 방식 HEVC 확보 등 8K 디스플레이와 콘텐츠 관련 다양한 인증 기준이 포함돼 있다.

8K 협회는 그동안 8K 생태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 확보에 주력해 왔다.

현재 TV 제조사 외에 패널·칩세트·콘텐츠 제조사, 스트리밍·장비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참가 업체 규모를 확대해 현재는

총 22개사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협회는 지난해 9월 8K 인증 기준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다른 회원사들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8K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확대되는 8K 시장에서 업계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8K 경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외에도 8K 인증 기기 확대, 고품질 비디오 콘텐츠 시장 확보, 업계 성장을 위한 8K 기술 로드맵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호진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8K 시장의 선두에 있는 만큼 8K 협회는 물론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해 8K 생태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쉐보레, 60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가 최대 60개월의 전액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쉐보레는 1월 한 달간 ‘2020 쉐보레, 파인드 뉴 이어(Find New Year)’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차종별로 2019년 생산 모델이나 2019년형 모델을 대상으로 최대 60개월의 전액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행사다.

다른 혜택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차량 가격의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차종별 혜택 폭은 말리부 디젤 10%, 이쿼닉스 10%, 카마로 SS 10%, 스파크 9%, 트랙스 8% 등이다. 7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에게 스파크, 또는 트랙스를 구매할 경우 추가 30만 원, 말리부 및 이쿼닉스 구매 시 추가 50만 원의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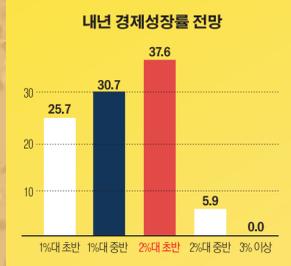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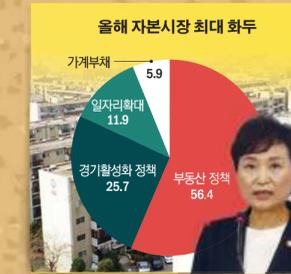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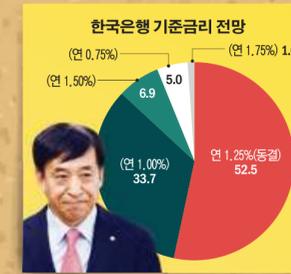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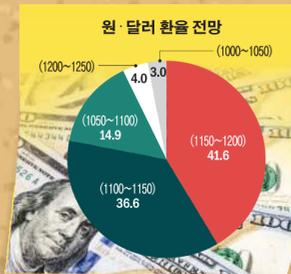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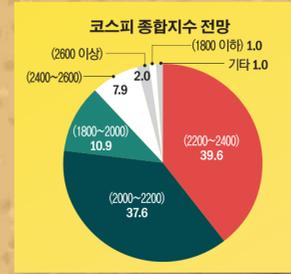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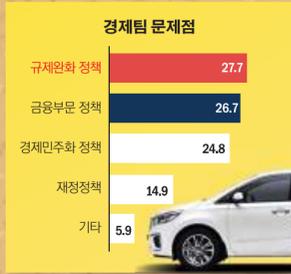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55.5% “정부 경제팀 낙제점”... ‘2%대 초반 성장’ 예측

“반도체 업황 개선에 증시 반등”... ‘금리 동결’ 우세

경제전문가 101명에게 물었습니다

(단위: %) * 산업연구원·KDI·노동연구원 26명, 증권사 75명 * 비율은 소수점 2자리 반올림



경제 전문가 101명에게 들어봤더니...

“정부 잘하고 있다” 11.9% 그쳐... ‘복지 정책’에 높은 점수
경기 활성화 걸림돌은 ‘정부’ ‘식물국회’ 가장 많이 꼽아
美中 무역갈등·정부 정책·내수 부진 등 경제 악영향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2.0%, 수출 -10.8%, 경상 수지 580억 달러 흑자로 폭 축소 등 경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전망했지만 2018년 2.7%, 2019년 2.0%에 이어 3년 연속 2%대에 그쳐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다는 분석이다. 수출 역시 3.0% 증가를 예상 올해 월별 수출은 지난해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투데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인지 알아보기 위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월 16-19일 나흘간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정부 경제팀이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동시에 걸림돌로 정치권·정부를 꼽았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조금 못한 24.8%·아주 못한 30.7%)가 절반 이상인 반면(조금 잘한 8.9%·아주 잘한 3.0%)의 4배가 넘었다. 지난해 12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

반면 복지 정책은 절반이 넘는 52.5%의 높은 점수로 꼽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저소득층 지원금 복지 망을 넓힌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뒤를 일자리 정책(19.8%), 부동산 정책(9.9%), 기업 정책(5.9%)이 있었다.

경기 활성화 걸림돌은 10명의 7명 꼴로 정치권(34.7%)·정부(37.6%)를 꼽았다. 정치권이 정권에 때론 ‘식물국회’로 전락한 점에 국민은 실망했고, 정부도 무너지는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지 못한 점에서 경기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노조가 걸림돌이 된다는 답변은 각각 12.9%, 9.9%로 조사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1%대 초반 25.7%·1%대 중반 30.7%)가 2%대(2%대 초반 37.6%·2%대 중반 5.9%) 보다 우위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KDI와 산업연구원은 각각 2.3%, 민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1%, LG경제연구원 1.8%를 전망한 바 있다.

기업 경영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변동과 정책이 44.6%, 43.6%로 높게 나왔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세계 헤택(법인세 인하·임무세액공제) 34.7%, 인허가 절차 간소화 25.7%, 해외 진출 지원 확대 16.8% 등이 나왔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는 미·중 무역갈등이 49.5%로 가장 많았고 정부 경제 정책(24.8%), 내수침체 등 소비 부진(17.8%)을 들었다. 올해 자본시장 최대 화두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56.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제활성화 정책 25.7%, 일자리 확대 11.9%, 가계부채 5.9% 등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rby@

증시·환율·금리

2020년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중국 무역분쟁 우려 감소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코스피 지수 2200선을 넘어 반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와 2200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투데이가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39.6%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2200~2400으로 내다봤다. 2000~2200으로 내다본 전문가도 37.6%여서 낙관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해 코스피지수보다 낙관론 전문가가 50.5%로 근소한 우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가 2400~2600으로 갈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7.9%였고 1800~2000으로 갈 것으로 비관적으로 본 전문가도 10.9%다.

낙관론자들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 경기 침체 우려 완화를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공사인 아랍코의 아시아 증시 2차 상장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과 미국 대통령 선거, 국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재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관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떨어지는 수준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말 환율 수준인 1100원에서 12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봤다. 1150원에서 12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41.6%로 가장 많았고, 1100원에서 1150원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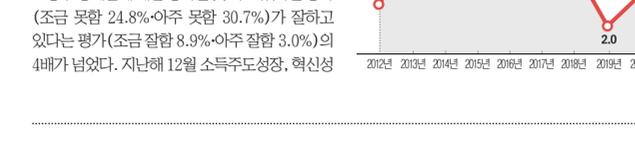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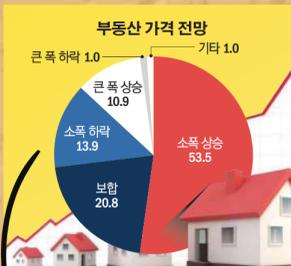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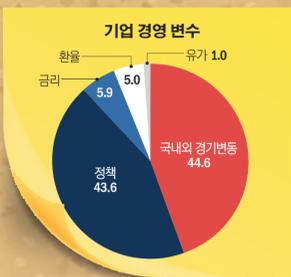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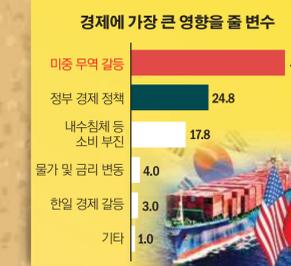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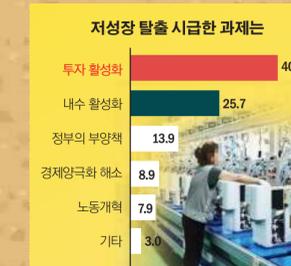
“코스피 2200~2400선”... 아랍코 2차 상장으로 자금 이탈 우려

美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 41.6% “원·달러 환율 1150~1200원”

잠재성장률 하향에 저물가 고착화 양상... 돌발 악재 가능성도 커

이 같은 예상은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훈풍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중 협상도 2단계 결과가 불분명한 가운데, 최근 다시 불거진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 등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Fed) 통화정책 방향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지표들로 인



10명 중 6명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오를 것”

부동산 시장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정·개선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투데이가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5%가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통’이 20.8%로 두 번째로 많았고, ‘소폭 하락’(13.9%), ‘큰 폭 상승’(10.9%), ‘큰 폭 하락’(1.0%), ‘기타’(1.0%)가 그 뒤를 이었다.

‘큰 폭 상승’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63.4%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집값 잡기’를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과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017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7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12.36%나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억제

정책을 폈다. ‘경기활성화 정책’이 25.7%로 뒤를 이었고, ‘일자리 확대’(11.9%), ‘가계부채(5.9%)’ 등 순이었다.

‘정부 경제팀이 잘한 정책’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 정책’(5.9%)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9.9%)을 꼽은 응답이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52.5%는 ‘복지 정책’을 잘한 정책이라고 답했고, ‘일자리 정책’(19.8%)이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다. ‘수정·개선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 이냐는 질문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주택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및 폐지’(28.7%), ‘서울 정비사업 규제 완화’(11.9%),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완화’(8.9%),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확대’(8.9%), ‘기타’(6.9%)가 뒤를 이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건설 경기 부양과 밀접한 ‘투자 활성화’를 꼽은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년보다 5조 원 늘어난 60조 원으로 확대해 공공주택 및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20대 국회 작년까지 2만건 이상 발의

거의 규제 강화... 대부분 ‘실적 쌓기’

27.7% “사전규제 심사제도 도입”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각종 법안은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경제전문가 다수는 국회의원의 ‘입법 남발’을 막기 위해 법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제인 ‘경제민주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다수였다.

1일 이투데이가 경제전문가 101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7.6%는 국회의원의 입법 남발을 막기 위해 강제력을 가진 법률을 제정·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7.7%였다. ‘의원들이 법률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동의 수를 늘려야 한다’(13.9%), ‘국회의원 스스로 자발적인 각성이 필요하다’(12.9%) 순이었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묻는 다른 문항에서 응답자 34.7%가 정치권을 지목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의 ‘경제 발목잡기’는 주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이뤄진다.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는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2만1251건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면 수치가 두드러진다.

한국경제자유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스 등 주요 선진국이 양원(상원·하원)의 상호견제를 거치는 반면 우리는 단원제여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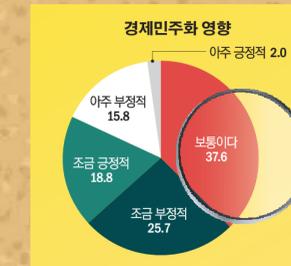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분배’ 정의를 중시하는 흐름 속에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의 발의가 활발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등 정치적 화두가 떠오른 데 따른 영향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41.5%(조금 부정적 25.7%, 아주 부정적 15.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는 중립적 답변이 37.6%로 뒤를 이었고,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답변은 20.8%(조금 긍정적 18.8%, 아주 긍정적 2.0%)에 불과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대통령이 규제개혁 행보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 등 경제민주화 일환에서 이뤄진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했다”며 “기업 입장에서선 투자의 잠재적인 불확실성으로, 투자자 입에서는 ‘잠재된 리스크’로 인식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유용현 기자 lamuziq@

국회의원 입법 남발 대책

국회의원 자발적 각성 12.9%, 기타 7.9%, 입법 남발 막을 법안 제도화 37.6%, 의원발의 법률안 국회의원 동의 수 강화 13.9%, 사전 규제심사제 도입 27.7%



그림작업자 sssnk@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집값 결국 오른다”...올해 큰손은 밀레니얼 세대

#30대가 시장 주도

“부동산 시장에 밀레니얼 세대가 왔다, 그리고 온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깨는 주요인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지목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집을 놓고 희로애락을 겪은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님을 바로 곁에서 목격한 세대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이 떨어져 울상 짓는 모습부터 집값이 올랐을 땐 집장만을 안 한 걸 후회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접했다. “집값은 오른다”는 학습을 제대로 한 세대다.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했고 앞으로 이 세대가 40·50·60대가 되면서 주택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30대”라며 “이들은 자산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그나마 헤징(Hedging)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부동산학과)도 “최근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30·40대다. (집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 또는 고령층과 달리) 이들은 집을 안 판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부터 집값 흐름 전망을 30대가 주도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뒤따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빠른 정보습득 무기 집값 흐름 이끌어 ‘정보창구’ 유튜브 고 분석했다. 시장 왜곡 대책 시급 임 교수는 “한

국민은행의 주택가

격 전망 자료를 보면 2018년 이전에는 50대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30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30대의 전망치가 더 높아지면서 30대와 50대의 전망 시차가 2개월 정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먼저 판단한 30대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 50대 이상이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30대가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봤다”며 “정보 습득이 빠른 세대인 이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쉽게 (시장을) 나가지 않고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밀레니얼 세대 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요인으로 유튜브도 거론됐다. 정부 정책이 정신포이 쏟아지는 틈바구니에서 일부 유튜브(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사람)는 왜곡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이제 정보 매개체로서 필요악의 존재가 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유튜브들이 2~3년 전부터는 주택을 주식 분석하듯이 분석한다. 정부가 주택을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 너무 복잡해져 웬만한 사람은 공부해도 이해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수요자들이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릇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제, 관리가 없다면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선한 정책 의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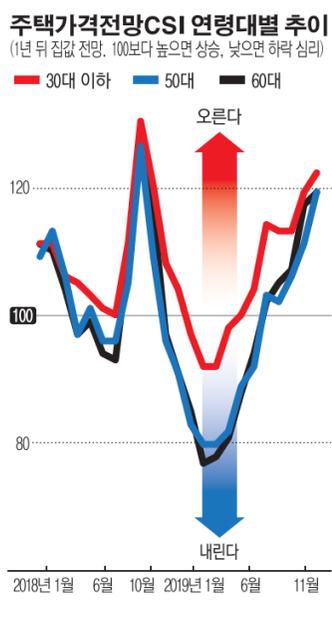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뺏다방’ (이동식 중개업소)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천막이 있었지만 요새는 ‘사이버상 뺏다방’”이라며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이버상 가짜 정보·왜곡 정보 등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상 정보망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부동산 ‘키워드4’

총 1만7689자. 정부가 지난해 말 역대급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 빌딩에서 열린 여성 부동산 전문가 대담에서 오간 글자 수다. 10여 년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온 5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대담에서 전문가들은 ‘수요’ 56회, ‘정책’ 38회, ‘공급’ 25회, ‘30대’ 22회, ‘정보’ 19회, ‘강남’ 16회를 언급했다. 경력 합계만 50년을 기쁘히 넘기는 베테랑들의 입에서 “전망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기여이 끄집어내는 기묘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2020년 부동산 시장을 기존 공식이 통하지 않는 변화의 해로 바라봤다.



여성 부동산 전문가 5인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이투데이 빌딩에서 열린 전문가 대담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고이런 기자 photoeran@



#강남도 양극화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앞으로 강남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서울과 비(非)서울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던 양극화 현상이 서울 강남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작년 12·16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고가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 부담을 올릴 거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수요를 부추기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며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도심이나 강남의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이고, 그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금지(시세 15억 초과 아파트 대상)는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규제였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 출구 전략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물량이 올해 상반기에 나오면 강남 등 고가주택이 포진돼 있는 곳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단기적으로는

거주 버티는 계층 세금 못내 퇴출 강남 일부 지역 상승폭 꺾일 수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계층은 강남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토부가 추정(작년 말 기준)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변동률을 보면 강남구 A아파트(전용면적 84.99㎡)의 경우 시세가 29억 1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21억 3800만 원(42.1% ↑)으로 오른다면 보유세 1042만 9000원을 내야 한다.

임미화 교수는 “강남에 집은 있는데 소득과 자산 여력이 부족한 일부 계층은 버티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집을 팔고 대체 투자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할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집값 ‘W’ 흐름으로

“집값은 ‘W’ 흐름으로 갈 것이다. 결국 오를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1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했다. 12·16 대책이 고강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함영진 랩장은 “올해 주택시장은 특정 지역보단 서울 전반의 집값 강세를 예상한다.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산 자금, 분양가 상한제 이후 새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강남권 외에도 비강남권까지 아파트값이 골고루 오르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저평가된 곳의 키 맞추기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2019년 12월 중순 기준) 주요 지역의 3.3㎡당 평균 실거래가가 △강남구 5235만 원 △서초구 4567만 원 △용산구 3807만 원 △성동구 3115만 원 △마포구 2994만 원 △동작구 2721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의 경우 △강북구 1616만 원 △노원구 1674만 원 △중랑구 1604만 원 △도봉구 1446만 원 △구로구 1704만 원 △금천구 1578만 원 등으로 고가 지역과 비교하면 3.3㎡당 4000만 원 가까이 차이났다.

함 랩장은 “정부의 주택 거래시장 단속 노원구·중랑구 등 저평가된 강북권 키 맞추기 움직임 매물은 적을 듯

과 중부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 기대감에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명숙 부장은 “작년 12·16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쉬어갈 기회를 제공했고 일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이어질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미화 교수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한 대상은 10년 이상 보유 주택인데 차익을 봤기 때문에 나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나 이런 수요는 극소수이고, 금방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득·자산이 부족해 강남에서 밀려 나간 계층의 자리를 누군가는 채울 것이다. 집값이 ‘W’자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책 리셋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대책을 내놓는다.”

‘정책의 진부함’, ‘시장 눈높이보다 뒤쳐진 정책’, ‘가격만 바라보는 정부의 다급함’.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향해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의 속도를 정부가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가격에만 매몰된 정책으로 부동산·주택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실장은 “주택에 대한 생각을 담론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완전 공공재니깐 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택 중에서도 좋은 주택들이 많다. (공공재라는 공공성에 얽매인 정책을 계속 펼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6억 원 이하로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2020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주택 수요를 바라보는 시각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10년은 ‘팻테일 리스크’(fat tail risk·정규 분포 나머지 부분이 두터워져 평균에 집중되는 확률이 낮아져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 시대로 봐야 한다. 불확실성 극대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시장도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과거 솔루션으로는 설명 안 되는 시장이 많다. 정규 분포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헤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 10년 팻테일 리스크 시대 집값 불확실성 커져 실수요자 보호 절실

진미윤 연구위원은 “주택 문제에 있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어느 정부, 어느 나라에서도 찬반이 있다. 다만 정책에 대한 시장의 냉소적인 반응이다. 집값을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상설 조직 부처가 있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안정성·신뢰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부가 조직·행정·자금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 책정 및 공급 계획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진 연구위원은 “정책은 규제만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 시장을 1·2차, x·y축이 아닌 3차원적 공간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실수요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과도한 것을 규제한다면 시장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안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후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총량적 인구를 떠나서 기호나 여건은 항상 바뀐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급만이 지원이 아니다. 변화하는 주택을, 리모델링 등 변화하는 수요를 정부가 어떻게 맞춤형으로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명숙 부장은 “단순히 아파트 단지, 공급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대다.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정부는 당장 집값에 불집혀 (큰 그림의) 정책이 더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인 게 안타깝다. 2020년 주택시장을 2006년 정책 버전으로 대응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박종화 기자 pbell@

국대 기업들, 4차 산업혁명 수백조 투자 '승부수'

초격차 넘어 '불가역 격차' 시동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은 업황부진과 산업 수요 감소, G2 무역분쟁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시달렸다. 다음 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할 상황에 현 경영 상황마저 위협받기도 했다. 위기극복의 관건은 누구나 알 듯 신성장동력과 기술개발이다. 하지만 종전과 패턴이 달라졌다. 추격자들이 따라올 엄두를 못 내는 '퀀텀점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전략과 경영 보폭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단기 투자나 업황 변동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주요 기업별로 중장기 전략을 앞세워 다음 세대 성장동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위기 속에서 경쟁기업을 앞서는 단순한 '초격차' 차원을 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인 '불가역 격차' 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성 시스템 반도체 강화·현대차 개인형 비행체 드라이브 = 먼저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가속도를 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에 2025년까지 13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의 중심을 퀀텀닷(QD) 디스플레이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보다 앞서 4월에도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내놨다. 2030년까지 133조 원의 투자와 1만 5000명의 고용 창출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이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R&D 투자에 그치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낸드 2공장에 8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 추가 투자도 공약했다. 올해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검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민간기업과 중국 정부 사이의 협력은 한중 관계 회복의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삼성 '반도체 2030' 133조
시스템 반도체 1위 프로젝트
QD디스플레이도 13조 투자

현대차 역시 2025년까지 청사진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담은 '2025 전략'을 천명했다. 자동차 기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이 골자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하게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판매하는 완성차 메이커가 아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과 수소전기차 등 자동차 사업이 전체의 50%를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개인형 비행체(PAV) 사업(30%), 로봇틱스 사업(20%)으로 세분화한다.

사실상 사업의 절반을 새로운 영역에 집중하는 만큼 투자 규모도 역대급이다. 향후 6년간 61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6년 동안 현재 사업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41조

현대차 '스마트 모빌리티' 61조
개인형 비행체·로봇틱스 베팅
사업 포트폴리오 절반 '체인지'

1000억 원, 전화·모빌리티·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투자로 약 20조 원을 집행한다. 목표로 삼은 2025년까지 매년 10조 원을 쏟아 붓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사들이 자동차에 매달려 있는 사이, 미래차 전략에 성큼 다가서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LG '선택과 집중'·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 LG그룹 역시 계열사별로 미래 성장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취임 3년차를 맞은 구광모 LG 회장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 LG 그룹은 판토스와 LG CNS, 서브윈 등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계열사 LCD사업 등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가속화한다.

비용 절감에도 나섰다. LG전자는 지난

LG 'OLED·배터리' 집중
LCD 등 비주력 사업 정리
배터리 매출 30조 등 목표

해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해 비용절감에 나섰다. 올해에는 스마트폰 제조사개발생산(ODM)을 저가에서 중가 제품까지 확대하며 원가 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살빼기에 나선 LG디스플레이 역시 사업구조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중심으로 전환한다.

LG화학도 미래 먹거리가 될 전기차 시대를 대비 중이다. 지난해 미국 GM과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법인 설립에 합의했고, 올 상반기 착공한다. 2024년까지 전기차 배터리를 발판 삼아 전체 배터리 사업 매출을 30조 원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SK도 차기 동력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다.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세를 예견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력 사업인 메모

SK '메모리·낸드'에 120조
2022년 용인에 반도체 팹 4개
전기차 해외 배터리 공장 건설

리와 낸드플래시 부문에 12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이와 일맥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12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도 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립하며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00GWh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기업이 중장기 전략을 앞세워 다음 세대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데 중"이라며 "초격차를 넘어 '불가역 격차'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송영록 기자 syr@

5G 반도체·자율주행·VR '글로벌 투자' 러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산업(제조업·서비스업)처럼 패스트 팔로어(새로운 제품·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기업) 전략이 통하지 않는 탓에 경쟁사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들이 앞다퉀 연구개발(R&D)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술은 단연 5G(5세대 이동통신)다. 5G가 주목받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동인 동시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5G가 가진 '초저지연성'은 컴퓨터에 입력한 데이터가 결과 값으로 나오는 시간을 단축시켜 오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드론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을 낮추게 된다.

이처럼 5G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5G 반도체 칩 시장에서

퀄컴, 최고속 5G 통신칩 개발
폭스바겐·구글 웨이모 동맹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 도전

는 미국 퀄컴이 돋보인다. 퀄컴은 지난해 12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스냅드래곤 기술 서밋 2019'에서 5G 모뎀칩 X55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플랫폼을 선보였다. 스냅드래곤865는 5G 통신칩 중에서도 업계 최고 다운로드 속도인 7.5Gbps(초당 기가비트)를 자랑한다. 특히 애플이 올해 생산 예정인 아이폰 차기작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X55 탑재를 확정하면서 5G 시장에서 퀄컴의 지배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이동통신 3사는 2021년까지 17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5G 설비투자에 쏟는다. 특히 중국 2, 3위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이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손을 잡는다. 광대한 중국

대륙 특성상 5G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 구축에 두 통신사가 힘을 모아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기술 투자 열기가 뜨겁다. 독일 대표 자동차그룹인 폭스바겐은 자율주행차 업계 1위인 구글 웨이모를 잡고 2025년 자율주행차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자회사 '폭스바겐 오토노미'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레벨4 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개발 회사로 도심 내 사람, 사물 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4단계는 목적지나 이동 경로가 정해지면 운전자 탑승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폭스바겐은 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플랫폼 아르고 인공지능(AI)에 26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자사 차량에 아르고 AI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 5G 반도체 모뎀칩 X55 업계 최고속 구현
미국 퀄컴	- 2020년 애플 5G 아이폰 탑재 확정
5G	- 2021년까지 170조 원 설비 투자
중국 이동 3사	- 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5G 네트워크 조성 협력
자율주행차	- 10월 자율주행 자회사 '폭스바겐 오토노미' 설립
독일 폭스바겐	- 자율주행 SW 업체 아르고 AI에 3조 원 투자
자율주행차	- 3조 원 들여 자율주행 자회사 'TRI-AD' 설립
일본 토요타	- 구글·아마존서 자율주행 인제 영입 총력
가상현실(VR)	- 2014년 2조 원 들여 VR 제조사 오클러스 인수
미국 페이스북	- 2019년 VR 게임 제작사 비트게임즈 인수
	- 2019년 클라우드 비디오게임업체 플레이기가 인수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 토요타는 인제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3조 원을 들여 설립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자회사인 'TRI-AD'에 구글, 아마존, 애플 출신 인력을 총원하고 있다. 모두 AI, 빅데이터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로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기술개발 핵심 역할을 맡는다.

토요타는 올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선 선보인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의 대변혁 속에서도 업계 선두주자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VR 산업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VR의 의학 분야에서 수술과 해부 연습, 군사 분야에서는 비행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일찌감치 VR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해 투자를 진행해왔다. 2014년 20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를 들여 VR 기기 제조 업체 '오클러스'를 인수했으며 지난해 11월, 12월 VR 게임 제작사인 '비트게임즈'와 클라우드 비디오 게임 업체인 '플레이기'를 사들이면서 VR 산업 콘텐츠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실패 기업인 재도전 막는 '연대보증' 족쇄 풀어야

폐업 후 기업의 대표가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개인 파산은 통상 1년 5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걸린다. 이를 거치고 재창업을 하는 경우 평균 5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후에도 신용 손상과 세금(세금은 파산제도로 면책되지 않는다) 등의 문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차명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대전에 사는 A 씨는 부도 뒤 3년 만에 재창업을 했다. 하지만 납세 및 채무를 정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20대의 딸을 사장으로 앉혔다. 이른바 '차명 창업'이다. 딸에겐 미안한 마음 뿐이다. A 씨만의 얘기가 아니다. 너무 흔해 화제도 못 된다고 재도전 기업인들은 냉소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명 창업은 전체 창업의 약 30%에 이른다고 한다.

실패한 기업인에게 씌워지는 무한책임의 '굴레'는 재기에 대한 꿈조차 사치로 만든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기업 대표가 폐업 후 법적 채무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원인에는 무엇보다 연대보증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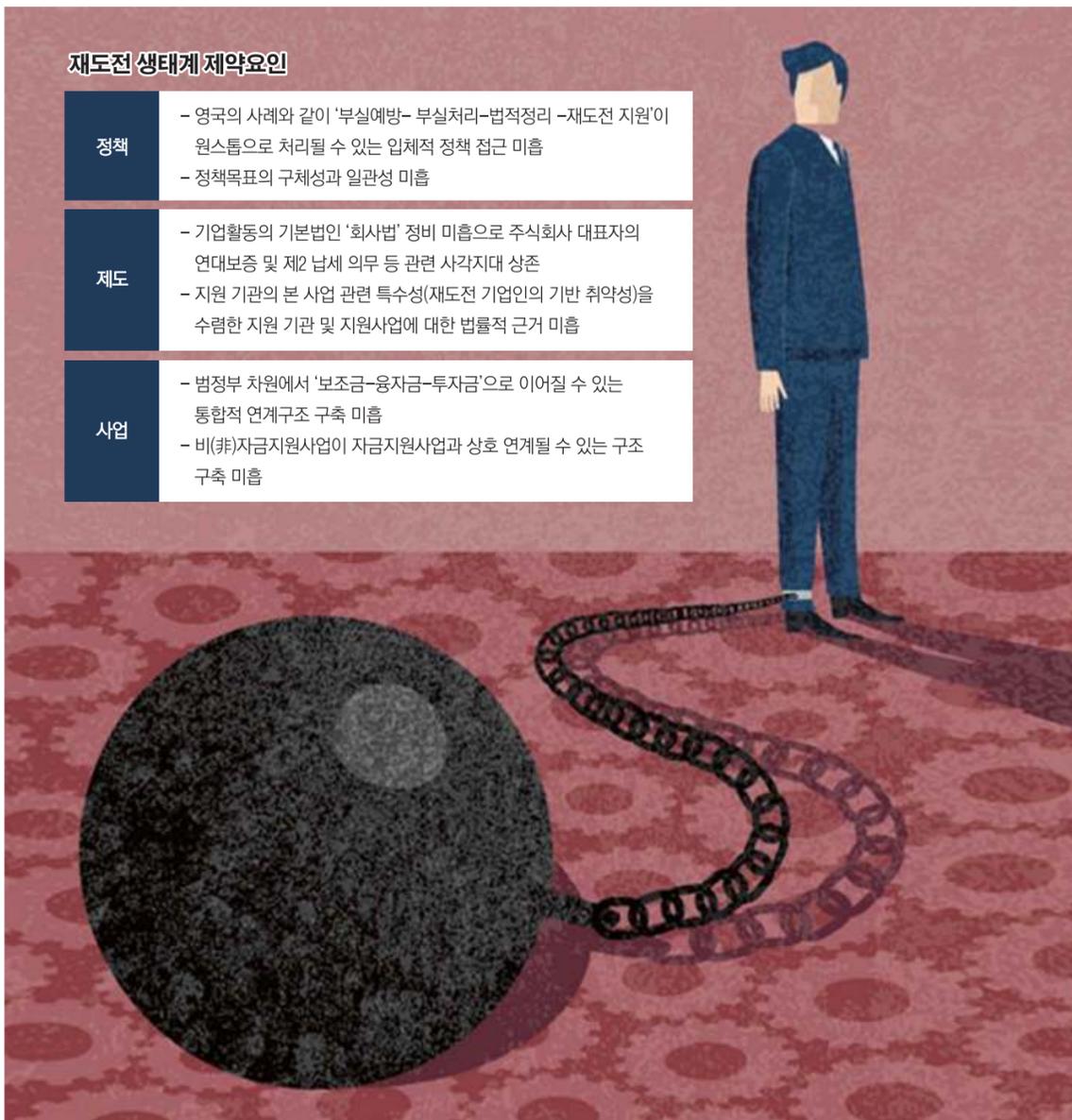
정부와 국책은행, 정부 보증기관은 2010년 이후 실패를 맞은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체감온도는 정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유희숙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회장은 "아직도 살아 있는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 재기 지원은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한다.

◇높기만 한 금융기관, 문턱 너머엔 '족쇄' = 회사 대표를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연대보증제는 1961년부터 197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2012년 금융위원회,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등 최근에서야 정부가 금융권에 폐지를 요구할 정도로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

경영자는 회사에 일정 책임만 지게 돼 있다. 이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만든 게 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책임 있는 경영을 주문한 것이지만 '파산=패가망신'이라는 고정관념의 배경이 됐다. 기업이 도산하고 채무를 못 갚으면 회사뿐 아니라 경영자의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집안에 '딱지'가 붙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이유다.

연대보증의 '족쇄'는 실패뿐 아니라 재기도 어렵게 만드는 '원흉'으로 지목된다. 사실상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



재도전 생태계 제약요인

정책	- 영국의 사례와 같이 '부실예방-부실처리-법적정리-재도전 지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입체적 정책 접근 미흡 - 정책목표의 구체성과 일관성 미흡
제도	- 기업활동의 기본법인 '회사법' 정비 미흡으로 주식회사 대표자의 연대보증 및 제2 납세 의무 등 관련 사각지대 상존 - 지원 기관의 본 사업 관련 특수성(재도전 기업인의 기반 취약성)을 수렴한 지원 기관 및 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흡
사업	- 범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융자금-투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 연계구조 구축 미흡 - 비(非)자금지원사업이 자금지원사업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구조 구축 미흡

기업대표 연대보증 제도 2018년 명목상 폐지됐지만 '은행법'상 기업 채무 불이행시 대주주도 신불자 낙인 금융권 대출 조건으로 상품 판매 '쪼기' 등 편법 성행 정책금융기관도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 제 역할 못해

다. 가장 큰 이유로 실패 기업인들에게 한 없이 가혹한 제도가 있다. 명목상 2012년 이후 금융위가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이 기업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는 일은 줄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연대보증은 버젓이 남아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더라도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대

주주면 은행법에 의거, 3개월 내 채무를 못 갚을 시 신용불량자로 전 금융권에 통보된다. 전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지만 경매 대금을 받기는커녕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 체납은 곧 신용불량이다. 국세를 체납하면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이 안 된다. 중가산금까지 붙는다. 신용이 바닥 없이 추락할 때 채권은 혈값에 되팔리기를 반복한다.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들은 실패 기

업을 신용불량자로 재차 낙인찍는다. 재기를 하려 해도 대부업에서조차도 돈을 빌릴 수 없다.

◇폐지방침에도 여전히 건재한 연대보증 = 정부는 2010년부터 재도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4월 시중 금융기관에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주문했다. 2019년 10월까지 총 39조 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없어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사실상의 연대보증은 분명 존재한다고 재기 기업인들의 한목소리를 낸다.

대표적인 것이 '쪼기'라고 불리는, 대출을 조건으로 한 금융상품 판매다. 지난해 9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쪼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

르면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57만 2191건의 쪼기 의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28조9426억 원 규모다. 규모도 오히려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최근까지 처벌은 8건만 이뤄졌다. 제재 수준도 기관에 10만~310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친다. 지난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따뜻한 금융'과는 거리가 멀고 '비 울 때 우산 뺏기'식의 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재도전 지원 의지에도 '안전제일주의'인 시중 금융사의 전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은행에 미상환 채무가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해당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식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책금융 = 정책금융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금융기관이 '투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재기 기업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사리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보증을 신청한 7083개 기업(2조8725억 원)에 대해 사실상 연대보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위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재창업 관련 정책자금도 되레 쪼그라들었다. 부실위험이 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등급 기업에만 정책자금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재도전 지원자금 가운데 신용이 낮은 11~13등급 대상 지원액 비중은 2017년 22%에서 2018년에는 14%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15%에 그쳤다.

어떤 식으로든 심사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중진공의 정책자금 부실률은 2015년 3.39%에서 2019년 8월 2.25%로 급감한 반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연체율(정상 대출잔액 대비 연체금)은 2.43%에서 4.52%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정말로 정부가 연대보증을 폐지해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의지가 확실한지 의심된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높다. 오히려 재도전 특별법 등의 조치를 통해 연대보증을 법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회장은 "연대보증을 폐지해도 은행법이 가로막는 등 정부 부처별 창업 관련 법안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개별적 규제 철폐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가 서로 연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재기지원법 등 법제화 통해 재창업 실질적 도움 줘야”

사업에 실패한 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정부와 경제기관의 재기 지원책들은 그리 신통하게 와닿지 않는다. 현실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기를 가로막는 '끝판왕' 격인 연대보증의 굴레를 벗는 것부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재도전을 준비한다는 한 기업인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넘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다가 또 범법자 신세로 전락한다"고 토로했다. 재도전 기업인들과 경제단체가 연대보증 폐지 등이 보장된 완성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는 이유다.

이들 재도전 창업자나 관련 단체가 요구하는 법안은 △신용 등급제 폐지법 △

기업인 '신용등급 폐지' 목소리
패스트트랙 심사제 등 시급
'재도전' 전문기구 설치도 필요

재기지원법 △계층이동(사회이동) 지원법 등 이른바 '재도전 경제활성화 3대 입법'이다.

우선 신용등급제 폐지법은 기존 신용 등급제 대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다. 성실했지만 실패한 기업가들의 신용불량 기록을 없애 금융지원 등에서 부정적 신용 정보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는 폐해를 줄

이자는 취지다. 계층이동(사회이동) 지원법은 은퇴자의 인생 2막 설계 및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 재도전과 계층 이동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의도다.

가장 중요한 법안은 '재기 지원 특별법'이다. 현재 '회사법'이나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마련하자는 게 중론이다. 실패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법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재기지원법안의 사례는 △정직한 성실 기업인 실패 시 신속한 재도전 보장 △정부 선별 지원에서 민간이 자율 선택 △도덕적 해이에는 징벌적 배상 △성실 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신생 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 등이 있다. 특히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비롯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 패스트트랙 심사제 등이 시급하다는게 중소기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정책금융 운영도 개선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한 재창업 자금 융자 지원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기업이 도약할 시기인 이른바 창업 3년 뒤 '데스밸리' 구간에서 돈을 거둬간다는 것이다. 특히 재도전에 나선 기업인들에게는 결국 중진공의 재창업 자금이 또 다른 신용 불량자의 길로 내몰리는 것이라는 얘기가.

이 때문에 재기를 노리는 기업인들은 특별법 제정 외에도 창업 안전망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파산 시 면제 재산 범위를 늘려주고, 폐업 수당을 주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기지원법안은 △세금 마일리지 혜택 등 성실 경영 평가 제도 보완 △통합 도산법 개정 △스타트업 공제 제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기업인들은 재기지원법안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통합 직속기관 및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재도전 정책이 전 부처에 걸쳐 진행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작은 것 하나를 바꾸거나 지원받으려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탓이다.

이재훈 기자 yes@

과기부, 과학기술·ICT 연구개발에 5조1929억 투입

‘과학기술’ 4조1524억 ‘정보통신’ 1조405억 배정
기초연구 예산 늘리고 5G 기반 신산업에 집중 투자
독자 위성기술 확보 등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정부 과학기술·ICT R&D(연구개발) 투자에 5조1929억 원을 투입한다.

1일 과기정통부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 8조5029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4조1524억 원, 정보통신(ICT) 분야에 1조40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구(1조5312억 원) △원천연구(1조6804억 원) △ICT 연구개발(8121억 원) △R&D 사업화(2309억 원) △인력양성(2087억 원) △R&D 기반 조성(7296억 원) 등이다.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 기초연구 3198억 증액=먼저 세계적 수준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3198억 원 늘어난 1조5312억 원을 투입한다.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 상향

(연 1억 원→1억5000만 원), 신진 연구자의 공동연구그룹 내 필수적 참여(신진 연구자 1명 이상 필수 참여) 등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집단과제(3~4인) 지원도 확대해 연구 성과가 연구실 단위로 축적돼 우수 연구그룹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남은 연구비를 이월하거나 모자라는 연구비를 차년도에서 당겨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신규 과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창의적·도전형 연구를 유도하는 맞춤형 평가를 위해 연차 점검 시 중간발표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공개 검증능을 강화하고, 최종 평가는 선정-단계-최종 평가에 참여하는 전담 평가자를 지정해 PM과 함께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지표에 따라 맞춤형 평가로

구분	과학기술	ICT
기초연구	기초연구사업(1조5312억 원)	
	원천기술개발사업(9317억 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7862억 원)
	우주기술개발사업(3594억 원)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259억 원)
원천연구	원자력연구개발사업(2467억 원)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1192억 원)	
	국민생활연구사업(234억 원)	
사업화	산학연협력·기술사업화사업(1995억 원)	ICT기술사업화사업(314억 원)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1094억 원)	ICT인력양성사업(933억 원)
인력 양성	과학기술국제화사업(452억 원)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5867억 원)	ICT기반조성사업(977억 원)

진행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반기술 지원 및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유망 바이오 산업인 신약, 의료기기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감염병, 뇌과학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한다.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산업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

전,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한다.

◇5G+ 전략, 10대 핵심산업 투자 확대=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분야의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ICT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수립한 ‘5G+ ICT R&D 기술로드맵’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152억6900만 원), 차세대 스마트폰(45억 원), AR·VR 디바이스(126억 원), 커넥티드 로봇(55억 원), 정

보보안(66억 원), 에지컴퓨팅(107억 원), 실감콘텐츠(227억 원) 등 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에 879억 원을 투자한다.

ICT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장비(기지국) 및 단말기(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모듈·디바이스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에지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에도 글로벌 이동통신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민간의 창의·도전형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를 유인하는 경쟁형 R&D도 강화한다. 우선 고효율 홀로그래프 기술 개발, 데이터셋 보정기술 등 난제 기술 및 민간의 경쟁축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경쟁형 R&D 투자(224억 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올림픽(가칭)’ 등 R&D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팀에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ICT 챌린지 방식 연구를 강화한다.

이재훈 기자 yes@

국내 규제완화 앞둔 게임업계 ‘중판호 발급’ 해결 과제

국내 게임시장이 2020년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되고 주52시간 제도 시행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국 판호 문제 해결은 끝날 줄 모르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는 개정안에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웹보드 규제 중 1일 한도 10만 원을 폐지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5월 PC 온라인 성인 결제한도 50만 원 제한을 폐지했다.

올해부터 50~299인 규모의 게임업체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다. 중

준비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은 ‘블레이드앤소울2’, ‘세븐나이츠2’, ‘A3스틸 얼라이브’,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등이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게임업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은 현재 판호 발급을 막으면서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을 막고 있다. 전 세계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발급이 재개된다고 해서 곧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시장이 개방된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베이징에서 게임 육성정책을 발표하는 등 호재도 잇따르고 있어 긍정적인 상황이다.

국내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중국 게임과의 경쟁도 중요하다. 과거 중국 게임은 ‘짜퐁’ 게임으로 불리며 낮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고퀄리티 그래픽을 장착하며 평가가 상승했다. 특히 아무런 규제 없이 중국 게임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국내 모바일 시장을 석권하며 국내 기업들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산 게임은 중국에 진출할 수 없는데, 중국 게임은 한국으로 들어와 경쟁하고 있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에는 게임산업을 죄고 있는 규제들이 풀려 좀 더 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웹보드 규제 완화 호재
모바일 게임 신작 러시
중 게임 육성정책 발표
판호 발급 재개 기대감

‘제8회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특별공로상에 이규홍 부장판사

KAIST 도곡캠퍼스에서 개최한 ‘2019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김명신 변리사가 대상을,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가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특허·저작권·브랜드 등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수상자의 공적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비중을 두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김명신 변리사는 1972년 명신평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전자, 기계, 화학 등 분야별 선두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산증인이다.

김명신 변리사는 변리사들의 권익 향상, 국내 지식재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여한 바가 컸다. 1990년 한국무역협회에서 미국통상관세법 해설로 미국의 국제통상위원회(ICC)의 역할 및 업무 소개와 한국수출업체의 주의사항 등을 널리 홍보한 바 있다. 변리사시험제도 개혁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 무심사 실용신안법안 개정 반대 성공, 특허법원 설립운동 주도, 사법연수원 교수의 변리사 민사소송실무연수제도 도입, 최초의 지식재산 민·형사사건 판례집 발행, 대한변리사회 특별회비제도 창안 실시, 모금운동을 통한 대한변리사회관 구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변리사 무료특허 상담실 설치 등을 주도했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제와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2015년 6월 국회, 행정부, 법



김명신(오른쪽) 변리사와 이규홍 부장판사가 '지식재산대상'에서 대상과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카이스트

원, 학계, 산업계, IP 소송전문가로 구성된 대법원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활동의 기획, 해외 사례의 비교연구 등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국회 및 대법원에서의 각 위원회 활동은 결론적으로 법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글로벌 수준의 소송절차 확립,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손해배상),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의 설립 및 운영, 국제재판부의 도입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영희 기자 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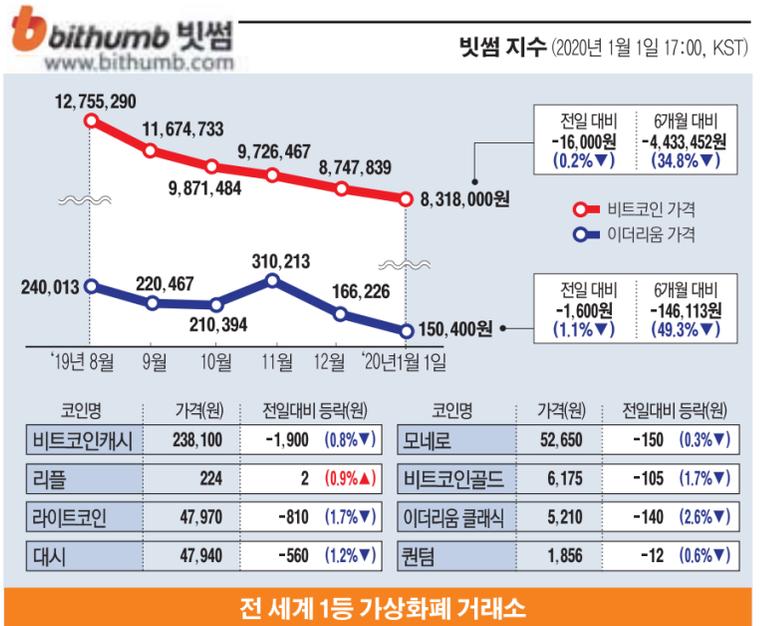
“윈도우7 지원 종료 대응” 과기부 ‘종합상황실’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4일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신규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위험 노출 등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종합상황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종합대책반(유관기관 협력 및 대외홍보) △기술지원반(전용백신 개발 및 배포) △상황반(상황 모니터링, 사고대응, 유관기관 상황 전파 등) △민원반(윈도우7 종료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다.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후 신규 취약점을 악용해 발생하는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성코드 출현 시 백신사와 협력해 맞춤형 전용 백신 개발·보급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위협성과 함께 OS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단 하루 최대 반값” 매장 오픈 전부터 ‘인산인해’

현장 가보니 대형마트 새해 벽두 ‘초저가 경쟁’

대대적 판촉 행사에 주말 대비 20~30% 이상 집객 확대 이마트, 기획 생필품 볼티... 롯데, 1+1 통큰치킨 매진

“단 하루, 오늘만 세일합니다.” 대형마트가 1월 1일 신년 벽두부터 ‘초특가’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날 ‘초특가탄생일’의 줄임말인 ‘초탄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씩데이’ 행사에 준하는 대규모 물량을 신선식품부터 가전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놨다. 이날 점심 무렵 방문한 이마트 영등포점에서는 판촉 사원들이 너도나도 “단 하루 세일”을 강조했고, 광고 전단지들 든 사람들은 뭇 사야 싸게 사는 건지 ‘연구’하며 초특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전부터 와서 장을 보는 중이라는 60대 주부 김모 씨는 “오전엔 사람이 더 많았다. 지금 서 있는 매장 한가운데까지 계산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쭉 이어졌을 정도”라며 “평소에 대형마트에 장 보러 자주 오진 않지만, 오늘은 신문에서 크게 세일한다고 광고한 걸 보고 왔다. 지금 생필품 위주로 쇼핑 중”이라고 말했다.

매장 고객들의 쇼핑 카트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기획 물품들이 여러 개 담겨 있었다. 섬유유연제, 세제, 치약 세트 등 생필품을 골고루 산 20대 한모 씨는 식자재 사러 마트에 왔다가 행사를 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취 생활을 한다. 오늘 마트에 장 보러 왔는데, 할인 행사를 워낙 크게 해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먼저 고르고 있다. 원래 사려고 했던 식자재는 이따가 둘러봐겠다”고 말했다.

이날 각 브랜드 매대 앞에 판촉을 벌이는 사원들은 오늘날만큼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 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전단 상품 위주로 구매하는 만큼 할인 품

목이 아니면 판매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가의 황도 배개를 판매하는 한 직원은 “평소 주말보다 20~30% 사람이 더 많이 왔다. 오전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생각만큼 우리 제품은 잘 안 나간다. 사람이 많아도 다들 전단지 보면서 세일하는 품목만 골라서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이마트의 ‘초탄일’뿐 아니라 롯데마트 역시 ‘통큰절’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1일 ‘단 하루, 대한민국을 널리 이롭게 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한민국 ‘통큰절’ 행사를 펼쳤는데 행사 가운데 하나인 ‘통큰치킨’ 1+1 판매를 기대하고 온 손님이 적지 않았다. 양평점을 방문한 30대 주부 이모 씨는 “통큰 치킨을 사러 왔는데 오전에 일찌감치 다 팔렸다고 해 다른 걸 사고 있는데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구로점에도 통큰절을 기대하고 마트에 찾아온 고객들이 여럿 있었다. 통큰절 전단이 붙은 할인 매대 앞은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구로점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주민 임모 씨는 “근처를 지나다가 오늘 통큰절 세일을 한다고 해서 들어나와 봤다”며 “원래는 식품 위주로 살았는데 돌아다녀 보니 이불을 싸게 팔아서 이불이랑 베개 세트까지 샀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쇼핑에 밀린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 발길을 끌기 위해 고품질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본 전략에 충실한 새해 첫날 세일 행사는 기획 의도가 비교적 적중했다. 상당수 소비자들 이 먹거리를 사러 왔다가 할인 폭이 높은 생필품까지 함께 구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백미선 기자 only@



대형마트 3사가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 할인 경쟁을 펼쳤다. 1월 1일 오전 이마트 성수점에서는 고객들이 ‘초탄일’ 행사를 맞아 매장이 열리길 기다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른쪽 사진은 롯데마트 구로점에서의 ‘통큰절’ 할인 행사 모습. 사진제공 이마트·백미선 기자 only@

주요 제약사 오너 자녀 경영 참여 현황

기업	이름	직급	출생연도	구분
보령홀딩스	김정균	대표	1985년	김은선 회장 장남(3세)
한국콜마	윤상현	부회장	1974년	윤종한 전 회장 장남(2세)
삼진제약	최지현	전무	1974년	최승주 회장 장남(2세)
	조규석	전무	1971년	조의환 회장 장남(2세)
	조규형	상무	1975년	조의환 회장 차남(2세)
동화약품	윤인호	상무	1984년	윤도준 회장 장남(4세)

젊어진 제약사... 오너가 3040세대 경영전면에

김정균 보령홀딩스 대표·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등 승진 ‘경영능력 시험대’

장수 기업이 포진한 제약업계가 신년에도 오너 경영을 강화한다. 경영 전면에 등장한 오너 2~4세대들이 성과를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제약기업들이 새해를 맞아 오너가(家) 자녀를 승진시키며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나섰다.

보령제약은 보령홀딩스 신임 대표이사 김정은(35) 운영총괄을 선임했다. 김 대표는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의 아들로, 2014년 보령제약에 입사해 2년 만에 상무로 초고속 승진, 2017년 보령홀딩스로 자리를 옮겼다.

창업주인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은 슬하에 네 명의 딸을 뒀다. 김은선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보령제약을 이어받은 지 10년 만인 지난해 12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3세 경영을 위한 판을 깔았다.

제약업계 오너 중 ‘젊은 피’에 속하는 김 대표는 회사 매출과 수익성 향상에 공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기술과 융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

씨제이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제약 사업을 강화한 한국콜마는 2세 경영 구도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창업주 운동

한 전 회장의 아들 윤상현(46) 부회장은 승진에 이어 지주사 한국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윤 전 회장은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251만여 주를 지난해 12월 24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당일 종가 기준 약 520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31.4%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됐다. 윤 전 회장의 지분은 28.2%에서 14.2%로 줄어들었다.

업계는 지난해 윤 전 회장이 ‘막말 동영상’ 강제 시청 논란으로 갑작스럽게 퇴진하면서 경영 승계가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한다. 윤상현 부회장은 2018년 씨제이헬스케어 인수를 진두지휘했으며,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삼진제약은 1일 자로 최승주 회장의 장남 최지현(46) 상무와 조의환 회장의 장남 조규석(49) 상무를 각각 전무로 승진시켰다. 조 회장과 최 회장은 1968년 회사를 공동 창업해 50년 이상 공동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마케팅·홍보를 담당하는 최 전무와 경영관리를 맡은 조 전무는 2015년 이사로, 2018년 상무에 이어 전무까지 나란히 승진하면서 2세 경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최 상무는 입사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0~11월 삼진제약 주식 3만8692주를 장내 매수해 0.28%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 회장의 차남 조규형(45) 이사로 상무로 승진했다. 오너 자녀 3인 중 가장 먼저 삼진제약에 입사한 조 상무는 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은 4세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도준 회장의 장남 윤인호(36) 상무는 등기임원으로 이사회에 진입하면서 경영 참여를 확대했다. 누나 윤현경(40) 상무보다 한발 빠른 승진 행보에 업계에서는 후계 구도가 윤인호 상무에 좀 더 기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30·40세대 중심의 후계자 경영은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와 함께 혈연에 의존한 구태 경영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제약업계의 특성상 세대교체가 곧 혁신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영 승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자리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속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거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롯데백 ‘흰 쥐띠 해’ 출산 기획전

에프와·블루독 베이비 할인전 주요 점포 문화센터 출산 강좌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1월 한 달간 쥐띠 해에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1월은 백화점 출산·유아용품 매출이 연중 가장 높은 달이다. 롯데백화점은 매년 1월, 그해의 12지신 띠에 맞는 출산·유아용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본점, 노원점, 건대스타시티점, 김포공항점, 수원점 등 주요 점포에서는 쥐띠 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출산 관련 문화센터 강좌를 기획했다.

1월 본점 문화센터에서는 ‘오가니 쥐띠 친환경 아기용품 만들기’를, 노원점에서는 ‘2020년 쥐띠 오가니 코트’를, 건대스타시티점은 ‘2020 쥐띠 친환경 장난감, 침구’ 강좌를 진행한다. 김포공항점에서는 ‘순산을 위한 임신부 요가’를, 평촌점에서는 ‘뱃통 분만 임신부 요가’ 강좌가 열린다.

쥐띠 형상화한 캐릭터 출산선물도 선보인다. 유기농 유아복 브랜드 ‘오가니 맘’에서는 쥐 캐릭터가 그려진 배냇저고리·상하복·손싸개로 구성된 ‘쥐띠 탄생 기념 선물 세트’를 6만6000원에, 배냇기운·속싸개·손싸개·발싸개의 4종으로 구성된 ‘쥐띠 출산 세트’를 4만3800원에 판매한다.

유아복 브랜드 ‘에프와’에서는 ‘쥐띠 해 기념 출산 베딩용품 세트’를 31만6800원

에, ‘블루독 베이비’ 브랜드에서는 ‘마우스 배냇 세트’를 6만5000원에 선보인다.

유아 전문 주얼리 브랜드 ‘폼에스타’에서는 ‘12지신 쥐띠 메모리얼 각인 실버 미아방지 팔찌’를 6만5000원에, ‘12지신 쥐띠 메모리얼 각인 잭스톤 불 실버 미아방지 목걸이’를 13만 원에 판매한다.

공식 온라인몰 엘롯데에서도 1월 한 달간 쥐띠 해 탄생을 기념해 유아용품 기획전을 준비했다.

스페인 럭셔리 브랜드 ‘스와비넥스’에서는 ‘NO.1 유아 필수품’ 행사를 진행, 젖병, 치발기, 분유케이스, 이음식 보관용기 등을 할인 판매한다.

김해립 롯데백화점 유아동 치프바이어는 “연간 출산용품 수요가 높은 1월을 맞아 쥐띠 마케팅을 기획했다”며 “쥐띠 상품 뿐만 아니라 출산 관련 문화센터 강의까지 준비해 예비부모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백미선 기자 only@

이마트24, 요기요 손잡고 배달 서비스

35개 직영점... 매출 증가 기대

이마트24도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객이 ‘요기요’ 앱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배달 업체 ‘바로고’ 라이더가 주문받은 이마트24를 방문해 배송해 주는 식이다.

이마트24는 1일부터 다양한 상권에 있는 전국 35개 직영점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달서비스는 우선 직영점으로 진행되지만 판매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맹점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춰

올해 1분기 내 배달 수요가 있는 가맹점부터 차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마트24는 도시락, 주먹밥,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간편 간식, 디저트, 음료, 라면, 생활용품 등 70종과 1월 대표 행사상품(1+1, 2+1) 50종 등 총 120종의 상품에 대해 배달 서비스를 진행한다.

최소 1만 원 이상 결제 시 배달할 수 있고, 배달 비용은 3000원이며, 배달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이성민 이마트 24 팀장은 “배달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마트24를 이용하는 고객들



사진제공 이마트24

의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가맹점의 추가 매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진주~광양〉

“경전선 공사기간 연장 비용 안 줘도 된다”

HDC현산·롯데건설, 철도시설공단 상대 간접공사비 24억 청구소송 1심 패소

재판부 “하도급 업체 파산 등 공사비 집행 부진이 주원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들이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벌인 수십억 원 규모의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라 등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24일 항소했다.

이들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철도 시설공단으로부터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중 제4공구 노반 건설 낙찰자로 선정됐다. 준공 예정 기한은 2014년 4월이었으나 3년이 지난 2017년 4월 완공됐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배정 사업비 부족, 용지매수 지연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됐으며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2개월간의 간접공사비 24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기간이 원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됐다거나 피고에게 추가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다에서 맛있는 새해

1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0회 서귀포겨울바다 국제펜션수영대회' 참가자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며 희망찬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산 배정액보다 적은 액수를 공사에 배정하기는 했으나 주된 원인은 하도급 업체의 파산 등 원고들 측 사정으로 인한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집

행 부진”이라며 “예산 배정과 공기 지연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지매수율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나 미매입 토지가 시공에 필요한 용지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문화재 시·발굴 기

간은 최초 계획과 큰 차이가 없어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이 기사는 **channel 5** 유료정보서비스에 게재됐습니다

“카메룬 다이아 주가조작 CNK 상장폐지 정당”

대법 “심사 절차 유효” 원심 확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 상고

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한 CNK인터내셔널은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에 휩싸였다. 당시 오덕균 CNK 대표는 2014년 9월 회사에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CNK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CNK가 개선 계획을 미이행하고, 경영 안정성 취약점 등이 남아있자 2015년 3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CNK는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인 상장규정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CNK 측이 문제 삼은

규정들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보고 “한국거래소는 재무상태가 열악한 점,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점, 경영 투명성이 부족한 점 등도 종합해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은 상장규정과 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심사 항목을 제공하는 기준표의 내용이 모두 유효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환기기·에어샤워 등 설치

서울시는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자치구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명명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안심구역은 △금천구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km²) △영등포구 문래동 1~4가 일대(1km²)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 한강로 일대(0.7km²) 등으로 공업·교통 밀집지역이나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서울시는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 샤워실),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의승 서울시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다른 시도도 선도하도록 내실 있게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시스템 조작·가짜 계정·불법 다단계까지 ‘사기 주의보’

2008년 가을, 대한민국 최악의 사기꾼 조희팔이 잠적하자 7만여 명의 국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피해액만 5조 원이 넘는 이른바 ‘조희팔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로 기록됐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피라미드 사기는 1만2000여 명에게 1조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기·공갈 형사사건은 2014년부터 매년 4만 건이 넘는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각종 금융사기 사건은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데 심각성을 더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더는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며 점점 지능화하는 금융범죄의 수법들을 4회에 걸쳐 낱알이 알린다.

글 쓰는 순서

- ①지능화되는 신종 금융범죄
- ②서민 속이는 교묘한 사기꾼들
- ③멈추지 않는 피해자의 눈물
- ④‘서민다중피해’ 주시하는 검찰

가상화폐, P2P(개인 간 거래) 대출, 핀테크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한 사기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191건으로 집계됐다. 유망 사업 투자를 방해하거나 렌털 마케팅, 해외 수익 사업, 개발 사업 등으로 사기를 치던 전통적 방식의 불법 다단계 사기가 가상화폐, 핀테크 등 최신 유행 사업을 따라가고 있다.

조금씩 퍼지던 가상화폐 투자 열기는 2017~2018년 광풍을 일으켰다. 돈을 넣기만 하면 수십, 수백 배로 불어난다는 말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을 찾으면서 새로운 코인과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도 늘었다.

경품 미끼로 투자금 모집하고
유령회사 만들어 코인 조작
‘피라미드·유사수신’ 가장 많아
P2P·핀테크 사기도 활개

경상북도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대표 등은 지난해 ‘청약 방식의 가상화폐 배당’ 명목으로 38명으로부터 56억 원의 예치금을 받아 챙겨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더불어 일정 기간 청약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비례해 가상화폐를 배당하고 외제차 등 경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다. 거래소 폐쇄 직전까지 청약을 반복해 자금을 확보한 뒤 10억 원을 한 번에 인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피라미드 사기 및 유사수신’ 유형(137건)이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해 216억 원을 속여 뺏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태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이들은 실제 시장에서 물품 구매나 현금 환전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유망한 코인인 것처럼 속였다. ‘태국의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태국 지도층 인사 다수가 주주로 참여했다’ 등의 거짓말에 피해자들은 쉽게 현혹됐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도 운영하며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P2P 대출을 활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프로그래머 출신인 P2P 펀딩 업체 대표 등은 신종사기 수법인 ‘오버펀딩’으로 2000여 명으로부터 8억6000만 원을 빼돌렸다.

오버펀딩은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두고 마치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소한 것처럼 출금 명령을 입력해 모집액 일부를 빼돌린 뒤 다시 목표액을 광고액처럼 낮춰 출금 사실을 숨기는 수법이다.

지난해 5월 투자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조작 사실을 밝혀내면서 4명을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펀딩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피해액 3조... 사기꾼 잡아도 돈 돌려받기 어려워

금융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4개월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 총 사기 피해액은 3조27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6895억 원)보다 58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등 수법을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에는 파생금융상품을 내세운 외환거래와 금융 플랫폼 등의 용어를 내걸고 보다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투자자를 꾀어내고 있다. 7월 수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로 적발된 ‘텐벡캐피탈 사건’의 경우 비트코인 투자, FX마진거래 등 외국환 파생상품 거래, 피라미드 투자 방식의 세 가지 형태가 결합됐다. 이 일당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연간 약 108%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가장 일반적인 범죄 수법은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다.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코인업 대표 등은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오르다며 최대 200%의 수익

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실상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금융 추방 카페 운영자 김진호(가명) 씨는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의 처벌 여부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인데 구속되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매도(현금화)를 한다면 정부가 가상화폐를 매매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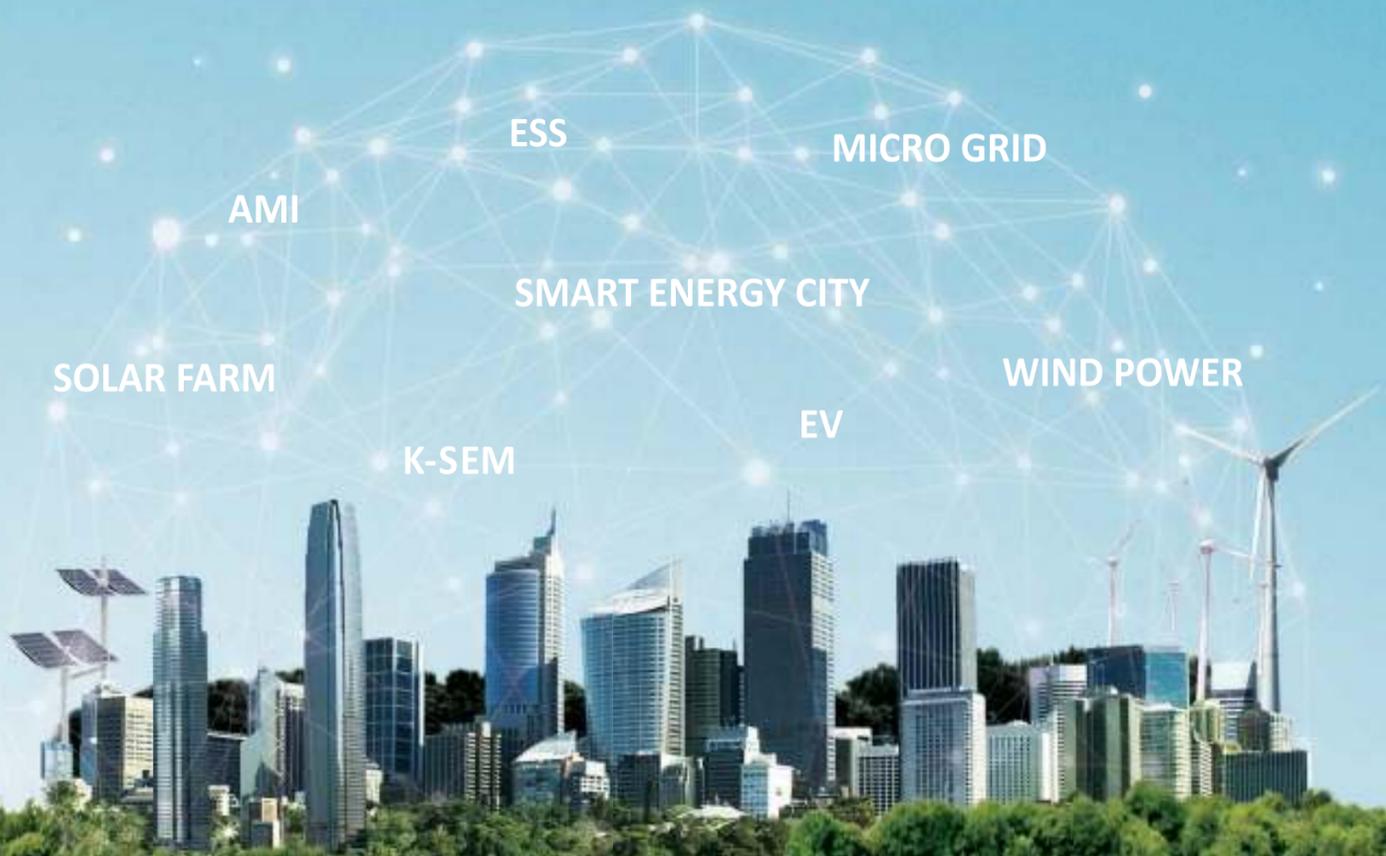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에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과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대통령 가입했다고 특별히 부담스러울 건 없죠”

‘필승코리아펀드’ 운용...고승철 NH아문디자산운용 CIO

최근 한 달 수익률 12.22%, 국내주식형 펀드 중 최고 기록 단기 성과 연연하지 않아... ‘소부장’ 기업 관심 더 높아져야

‘필승코리아’ 펀드가 상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입하면서 화제가 됐고, 최근 한 달간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필승코리아펀드는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공모펀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인 지난해 8월 출시 석 달 만에 설정액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펀드의 ‘선장’ 격인 고승철(사진) NH아문디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필승코리아펀드의 최종 목적지까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이투데이와 만난 고승철 상무는 대통령의 펀드 가입으로 ‘문재인 펀드’를 책임지는 셈이 됐지만 “외부

에서 보는 만큼 운용이 부담스럽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운용수익률에 대한 부담은 누가 가입했다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며 “낮은 지수에서 출발한 펀드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 좋은 종목 발굴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기준 필승코리아펀드(A클래스 기준)는 국내 주식형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인 12.22%를 기록했다. 그는 “펀드를 최저점에 설정하는 것이 최고지만, 이 시점에 고객들은 부진하는 증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주식형 공모펀드가 실패하는 대부분 경우가 주식이 한창 달아오를 때 출시해 고객을 유치하고, 곧바로 고점을 찍은 뒤 장기간 손실이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필승코리아펀드는 저점에 출시하고도 ‘극일’, ‘애국’이란 테마로 투자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100억 원가량 환매가 이뤄져 설정액이 1000억 원 밑으로 내려갔지만 고 상무는 “차익 실현을 위한 자금 흐름이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올렸다는 경험을 준 것만으로 긍정

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기초산업 분야가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정부의 꾸준한 지원만 있다면 소부장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기초산업 분야를 키우겠다는 정책 발표에 동조해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정책 현실화 과정과 함께 장기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고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의 완성은 상당 기간 후에 나타난다”며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져 펀드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의 기초를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조라인을 다 갖추고도 최종 수요자가 발주를 지연하는 경우 유통성 위기에 빠져 문 닫는 소부장 기업이 많았다”며 “필승코리아펀드가 소부장 기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공·민간 투자를 더 활성화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한양, 대림 출신 이기동 부사장 영입



한양이 주택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영입에 나섰다.

한양은 이기동(왼쪽 사진) 전 대림산업 주택사업실장을 주택개발사업본부 부사장으로, 박철(오른쪽) 전 동부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건설본부 부사장 전무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1991년 대림산업에 입사한 후 총 28년간 주택사업팀장을 거쳐 민간도급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사업실장을 지냈다. 박 전무는 1985년 현대건설 입사 후 동부건설까지 총 30년 이상 다양한 건설현장의 소장 겸 건축팀장, 기술연구소장을 거쳐 건축사업본부 부사장을 역임한 건설 전문가다.

한양 관계자는 “주택개발과 건설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은 물론 기술 노하우까지 보유한 전문가들의 합류로, 현재 진행을 앞둔 프로젝트의 사업화는 물론 신규 사업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차, 서울 영동대로서 ‘2020 카운트다운’ 행사

뮤지션 공연으로 시작 불꽃쇼·LED 미디어 영상쇼 펼쳐

현대자동차는 새해맞이 행사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부터 코엑스 야외 광장 앞 영동대로 일대에서 열렸다. 송가인, 윤도현밴드, 다이나믹듀오, 터보, 하하&스킬, 마이티마우스 등 공연을 비롯해, 사진은·오프라인 행사로 △유튜버 창현의 ‘거리 노래방’ △위시 카(Wish Car) 인증샷 이벤트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중에는 시민들이 각각의 새해 소망을 담아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는 ‘위시 라이트(Wish Light) 세리머니’도 펼쳐졌다. ‘카운트다운 세리머니’에는 연말연시 도심 최대 규모 불꽃쇼와 대형 옥외 LED를 활용한 미디어 영상쇼를 선보였다.

현대동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고객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가 뜨거운 관심 속에 잘 마무리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야외 광장 앞 영동대로 일대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행사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서진형 교수, 부동산학회장 연임

대한부동산학회는 최근 송실대에서 개최된 ‘2019년 대한부동산학회 정기총회’에서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가 제20대 학회장으로 연임됐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대한부동산학회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 수립과 저변 확대, 응용분야 연구, 올바른 부동산 개념 정립 등을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됐다. 부동산학 관련 학회로는 최초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학계의 대표적인 학회다. 전국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와 부동산 업계 등 9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임용 △국 제심사관리관 이수일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동물복지정책팀 장 안유영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 백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이진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 이상목 ◇과장급 전보 △농촌산업과장 김보람 △농촌재생에너지팀장 김지현 △농업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장 안재욱 △농업 정책과장 정아름 △농지과장 김동현 △농업금융정책 과장 서준환 △재해보험정책과장 박선우 △국가식품 클러스터진흥팀장 문석호 △원예산업과장 김형식 △원예경영과장 김수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 과장 조백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공익 직별제 시행 추진단 파견) 송남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고정봉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 지역본부장 조옥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 과장 남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윤광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황규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서재호 △한국 농수산대학(운영지원과장) 안종현 △국립종자원(운영 기획과장) 이태용 △국립종자원(식량종자과장) 김신재 △국립종자원(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이종 광 △국립종자원(충남지원장) 안창근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 이강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안경호 △녹색도시과장 성호철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 도시상생발전과장 이상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 총괄과장 유승경
- ◆조달청 ◇부이사관 승진 △조달관리국 전자조달 기획과장 전태원 ◇과장급 전보 △신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장 김공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보(선임실장·본부장) △자력부과실장 안수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장 서명철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성백길 △대구경북 지역본부장 김선숙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대용 ◇승진(1급) △의료기관지원실장 김민수 △보장지원실 장 이은영 △관악지사장 김연미 △대구수성지사장 남광수 △광주서부지사장 안규경 △전주북부지사장 박문규 △관산지사장 손근호 △화성지사장 남학우 △경

- 기광주지사장 전광영 ◇전보(1급) △건강장기요양업 무형력단장 이영신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반장 한성욱 △경영지원실장 최유용 △안전운리실장 정성화 △성동지사장 안정숙 △동대문지사장 노중식 △은평지사장 김봉주 △마포지사장 최원영 △금천지사장 정재규 △영등포남부지사장 박재강 △동작지사장 김홍찬 △서초북부지사장 김재훈 △강남동부지사장 박춘 권 교육센터장(부장대우) 박준환
- ◆DGB금융지주 ◇부점장급 △DGB생명 파견 이 군호 △HR·기업문화부 박성진 △시너지추진부 신일 규 △재무전략부 이상우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전무 승진 △리치투게더 해외운용본부 부부장 정석훈 △관리본부 부부장 성학 근 ◇부장 승진 △파트너본부 코퍼레이트파트너팀 파트너 이덕영
- ◆커리어케어 ◇부사장 승진 △미래사업본부 부부 장 윤문재 △채용컨설팅사업본부 부부장 고희승 ◇전 무 승진 △미래사업본부 I&D팀장 김지혜 △채용컨설팅 사업본부 인재평가센터장 김용성 △미래사업본부 F&D팀장 장대훈 △글로벌사업본부 I&D팀장 나충수 ◇상무 승진 △글로벌사업본부 C&S팀장 김도훈 △글로벌사업본부 F&L팀장 이은경 △미래사업본부 C &L팀장 박선진 △글로벌사업본부 부산센터장 황민 진 △미래사업본부 I&T팀장 김철섭 △글로벌사업본 부 CI팀장 정민호 △인사이드사업본부 C&N팀장 박형준 △헬스케어사업본부 H&S팀장 김나경 ◇상무보 승진 △미래사업본부 I&T 팀 이흥서 △경영기획실 IT사업기획팀장 정지용 ◇신임 부본부장 △글로벌사 업본부 I&D팀장 전무 나충수 △미래사업본부 F&D팀 장 전무 장대훈 △인사이드사업본부 F&I팀장 전무 박혜준 △채용컨설팅사업본부 인재평가센터장 전무 김용성
- ◆SBS 미디어그룹 ◇그룹 임원·경영위원 승진 △SBS M&C 대표이사 정해선 △SBS M&C 광고마케 팅본부장 이석규 △SBS미디어넷 방송사업본부장 이상수 △ 기획실장 조영일 △ 보도국장 김병길 ◇SBS 부국장 승진 △콘텐츠전략본부 아나운서팀 신용 철 △시사교양본부 박두선 △예능본부 글로벌콘텐츠 비즈팀장 김용재 △보도본부 논설위원실장 고철중 △ 일반뉴스부 노홍석 ◇ 보도제작팀 주영진 △경 영본부 라디오기술팀장 채수현 △ 편집기술팀 김학 정 △ 라디오기술팀 전종익 △ 인사팀부 파견 조 재홍 △윤리경영팀장 김우형 △윤리경영팀 안영준
- ◆중앙그룹 ·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 △광고사업

- 본부장 한정희 △광고국장 겸 광고메스컴 감독 △ 광고부국장 이상재 △사업국장 구명서 △신사업국 △ 신사업국장 정경민 △뉴스플랫폼담당 △뉴스서비스실 장 정진환 △대표직속 △일반지사장 신동화 △비즈니스 플랫폼팀장 김세진 △중국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신 경진 · JTBC ◇보도총괄 △보도부국장 겸 뉴스제작 에디터 배원일 △정치에디터 김성택 △경제정책에디 터 조민근 △탐사주말에디터 김준술 △디지털에디터 이승녕 △제작총괄 △예능국 특임CP 윤현준 △예능 국 1CP 성지경 △예능국 2CP 김형중 △예능국 3CP 김수아 △예능국 4CP 황교진 △예능국 5CP 김미연 △예능국 6CP 김은정 · JTBC 플러스 ◇트렌드부문 △스튜디오Live사업본부장 배경민 △스튜디오닷본부 장 김은정 △스튜디오닷본부사업국장 박도훈
-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강훈 ◇편집 국 △사회부장(부국장대우) 조중식 △국제부장 최원 규 △사회정책부장 이진석 △교육전문기자 안석배 ◇CS본부 △부본부장 겸 CS총괄팀장 심형권
- ◆서울신문 ◇승진 △국장급 △광고국장 류찬희 △ 사업국장 박현갑 △시설안전관리국장 양승현 △심의 실 심의위원 진경호 △경영기획실 부실장 겸 전략사 업기획부장 김철홍 △부실장 이연경 △편집국 사회2 부 김병철 △사업국 부국장 안창섭 △부국장급 △경 영기획실 재정부장 전선미 △편집국 여론부 박상렬 △비주요뉴스부장 김종만 △체육부 전문기자 최병규 △사회2부 강원식 △제작국 윤진부 차장 함훈섭 ◇전 보 △경영기획실 인사관리부장 이석 △편집국 디지털 미디어센터 소셜미디어랩부장 손진호 △사업국 전략 사업부장 김대우 △제작국 부국장 겸 윤진1부장 김현 국 △부국장 겸 기술관리부장 전준식 △윤전2부장 함 훈섭 △기술위원 김대혁 △공공정책국 △부국장 겸 사 실관리부장 이상훈
- ◆세계일보 ◇승진 △부국장 황용호 추경준 △부부 장 대우 전성용 서형석
- ◆국민일보 ◇편집국 △금융전문기자 이동훈 ◇종 교국 △뉴콘텐츠부장 이지현 △뉴콘텐츠부 선임기자 논설위원 전정희 △미션편집부 선임기자 노희경 △ 미션영상부장 김지방 ◇공공정책국 △부국장 김영석
-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총괄이사 엄미령
- ◆아시아투데이 ◇선임 △부사장 정규성 ◇승진 △ 편집국 경제부장 부국장대우 이규성 ◇전보 △편집국 뉴미디어부장 겸 국제부장 전현택

게시판

해양조사원 백용 주무관, IHO 부국장예

해양수산부는 1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백용 주무관이 국제수로기구(IHO) 사무국 기술 부 국장 공채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IHO

는 각 국가에서 제작하는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의 표준화와 효과적인 수로측량 방법 등 해양·수로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1921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93개국 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백 주무관은 내년 7월부터 IHO 사무국 기술 부국장으로서 모나코에서 근무하면서 회원국 및 국제해 사기구(IMO) 등과 기술개발 협력 업무를 맡는다. 임기는 5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경기연구원, 첫 여성 부원장 송미영 씨

경기연구원은 연구부 원장에 송미영(55) 선임 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원 24년 역사상 첫 여성 부원 장이 된 송 선임 연구부 원장은 고려대 생물학과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수석 독성)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수질 관리와 하천생태 연구 등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립공원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본시장 속으로



조 두 영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 금융기업 감독을 담당하며 인·허가를 비롯한 준수법적 제재 수단까지 보유한 막강한 기관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는 항상 비켜서 있고, 전면에서 나서 업무를 처리한 금융원만 속칭 '독박'을 써왔다. 이제라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에 대한 처벌(소추)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고발권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의 국제청장의 고발, 공정거래법의 고발이 그렇다. 그러나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감독원의 고발권한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부당하다. 수표가 부도나면 은행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고발을 하는데, 하물며 엄중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 조사를 거친 금융원 고발에 대해 증선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고발의 취지나 개념에 명백히 모순된다.

금융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조사팀의

조사, 내부 심사 조정 및 제재심의국과의 협의, 그리고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사 착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금융원에서 오랜 시간 심도 있게 마련한 고발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위원 몇 사람이 짧은 시간에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자조심은 법률상 조직도 아니다. 또 자조심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선위로 안건이 넘어가 다시 같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고발해도 좋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발 중에서 가장 힘든 고발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 의결이 있든 없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제3자(주주가 아니어도 상관없는)의 사소한 고발장 1장만으로도

금융원 고발과 동일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선위 의결이 있어야만 금융원의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는 제도는 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공정거래의 조사 내용은 우리나라 최고 조사기구인 금융원 조사국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물인데도 자조심, 증선위에서 단 몇 분의 토의를 거쳐 고발 허가·불허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제도에 맞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증선위, 자조심에서 논의 끝에 고발한 사건일지라도 20% 정도는 불기소된다. 허무한 일이다. 그 고발이 무리하거나 잘못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을 결정했던 '금융위(증선위)'는 빠지고 고발한 '금융원'만 댓배를 맞는다.

즉, 고발권자와 고발허가권자(이런 법률 용어는 없지만)가 다른 데서 오는 모순이다. 권한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

야 하는데 증선위, 자조심의 경우 권한은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없는 셈이다.

법 이론상, 고발할지 말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이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은 금융위원회의 전속 고발권도 아니고 증선위 결정은 공정위처럼 준수법적 기속력도 없다. 신속을 요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그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심의나 의결 절차는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다.

사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 금융기업 감독을 담당하며 인·허가를 비롯한 준수법적 제재 수단까지 보유한 막강한 기관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는 항상 비켜서 있고, 전면에서 나서 업무를 처리한 금융원만 속칭 '독박'을 써왔다.

이제라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원 고발에 대한 금융위 허가'와 관련된 것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

CEO 칼럼

유 희 숙 1492피앤씨애드 대표 한국제도전중소기업협회장



해가 바뀌었다. 2020년이다. 모두 새로운 계획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새해 계획은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도 그럴진대 정부 부처별 수장들의 신년사는 어떠한가. 국민들을 위해 기필코 새로운 정책을 꼭 실행하겠다는 절실함을 기대해 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안해본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년간 여러 단계에 걸쳐, 실업보험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폐업한 영세 사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였다. 우리의 현실은 2016년 폐업 수당 지급안을 직접 제안해 국회 법안 발의까지 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은 대학 졸업식에서 한 억만장자가 약 477억 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졸업 선물을 주고 정치인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는 취업에 실패한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

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현재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해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을 정부가 통으로 관리하겠다는 건 점수제나 등급제나 똑같다. 금융기관의 자율 운용에 맡겨야 한다.

우선 신용등급제도 폐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신용등급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별 자율 심사로 전환해야 한다. 또 성실했지만 실패한 기업가들의 신용불량 기록을 지워야 한다. 부정적 신용정보 등 금융 블랙리스트를 혁파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등급 폐지와 함께 재기를 지원하는 법도 제정해야 한다. 회사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이른바 '정직한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의 신속한 재도전을 보장하고 재기 지원에서도 정부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에는 징벌적 배상이 뒤따

라야 한다.

재기지원법의 핵심은 연대보증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제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연대보증제도의 혁신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가 투명경영 서약을 해도 한 번 실패를 겪고 나면 공공기관에서 기업 관계인 등재를 풀어주지 않는다. 말로는 연대보증 없이 됐다고 하지만 실상은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기업 대표는 계속 신용불량 상태가 유지된다.

정부가정책금융기관이든 시중금융기관이든 연대보증을 없애라는 권고가 아닌 법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 또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기 지원 자금 다양화 및 패스트 트랙 심사제를 운영해 자금 숨통을 터 주는 것도 재기 지원의 필수요소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전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위기 단계 △재도전 △성장 등 단계별 특화된 투·융자를 정부가 지원하

길 촉구한다.

현재 상환 연장이 안 되는 재창업 자금의 상환 연장 방안을 수립해 '비 올 때 우산 뺀' 구태가 없어야 한다. 통합 도산법 개정 기업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를 개선한 통합도산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회생 기업에 신생 기업과 동등한 신용을 제공하고 정부가 회생 기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면 재기 지원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통합 지속 성장 부처가 필요하다. 또는 전문 기구를 신설해 제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력 있게 진행해야 한다.

3대 정책 중 마지막은 계층 이동(사회이동)지원법이다. 우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학업을 재개하고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와 은퇴자의 인생 2막 설계 및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 재도전과 계층 이동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기자수첩

권태성 산업부/tskwon@



'위기경영'을 넘어 '공감경영'으로

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왔다. 그만큼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자는 채찍질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기 강조가 '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위기의식 고취는 기업 구성원과 사회가 긴장감을 갖고 분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위기의식

'남발'은 진짜 위기에 둔감하게 만들고, 구성원들의 피로감만 높일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12년 취업포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대상의 약 74%가 '회사의 혁신 경영 방침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미꾸라지가 있는 눈에 메기를 풀어 놓으면 미꾸라지가 오히려 살이 통통하게

찌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일부러 경영 위기를 강조하면 긴장감 때문에 경영이 활발해진다는 이른바 '메기 위기론'이 먹히는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도 위기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반복되면 경영진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무게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위기경영을 넘어 '공감경영'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경영의 미학이 필요하다. 위기경영을 하더라도 명확한 방향 설정과 이를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과 인정을, 위기를 이겨낸 이후에는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필요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아이작 아시모프 명언 "삶은 즐겁다. 죽음은 평화롭다. 골칫거리는 바로 그 중간과정이다."

미국 SF 작가·생화학자·과학해설자. 전공은 생화학이었으나 천문학·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광범위한 과학 일반에 대하여 뛰어난 해설자로 유명하다. 수많은 SF 작품을 발표한 미국 SF계의 제1인자로서 특히 미래 사회를 묘사하는 데 뛰어나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20~1992.

☆ 고사성어 / 마부정제(馬不停蹄) 말이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 쉬지 않고 달려 나아간다는 뜻. 중국 원나라의 유명한 극작가인 왕시푸(王實甫)의 작품 '여춘당(麗春堂)'에 나온다. 원문은 "적을 공격할 때에는 적이 미처 손쓸 틈이 없이 재빠르게 공격해야 하고, 일단 공격을 시작하면 쉬지 않고(말발굽을 멈추지 않고) 적을 사지로 몰아야 한다[的也難措手打的他馬不停蹄]."

☆ 시사상식 / 통화유동속도 일정 기간 한 단위의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시중 통화량 지표인 광의통화(M2)로 나눠 계산한다. 경제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영향받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금리, 물가 상승률의 변화, 경기변동 등 거시적 요인과 새로운 예금제도 도입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 속담 /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너무 급히 서두르면 실패하게 된다는 말.

☆ 유머 / 약덕 건설업자의 최후 약덕 건설업자가 죽어서 저승에 갔다. 저승사자가 "여기 지옥 1호부터 4호 중 하나로 골라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지옥을 각오했던 그가 보니 생각 외로 깔끔하고 좋아 "1호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지옥 1호로 입주했는데 이건 난장판 지옥이어서 "아니! 전에 본 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이건 사기죠"라고 항의하자, 저승사자의 대답. "전에 본 거는 모델하우스였느니라."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관치,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다

그 괴물이 역시나 꿈틀댄다. 금융회사, 특히 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먹고 사는 괴물이다. 그 괴물의 역사는 매우 깊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회사와 금융공기업의 수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바뀌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오죽하면 모피아(재무부+마피아)와 같은 단어가 그 괴물의 대명사처럼 쓰였을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특성이 괴물의 먹잇감이다. 이로 인해 그 괴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규제로의 틀, 괴물이 그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치'라고 부른다.

만일 정부가 규제의 틀을 넘어 월권적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위법적 관치다. 금융당국이 보이지 않는 월권적 규제로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린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나 금융당국이 행하는 모든 간섭을 관치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 시장의 합의인 법에 의한 규제 법치에 따른 금융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소 다르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또 읊조린다.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혼란에 빠졌던 차기 IBK기업은행장 자리를 놓고 관치가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 됐다. 그간 3번 연속 기업은행 내부인사가 은행장에 오르면서 더 이상 관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 기대할 때에 파장은 깊었다.

논란을 자초한 건 결국 제도인 듯싶다. 금융위원장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기업은행장이다. 다른 은행과 달리 임원 추천위원회 등의 제도가 없어 정부 발표 전까지는 하마평만 무성했다. 제도를 수정하지 않은 이상 낙하산이란 관치금융 논란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업은행장 자리를 놓고 관치금융으로 해석해야 할까. 정부와 금융당국이 법치라는 틀에서 벗어나 월권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간섭하는 것은 분명 관치다. 시장에서는 각종 협회장 인선에 관여하는 것도 월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있다면 법치다. 법의 틀이 틀렸다면 법을 고쳐야 할 일이다.

핵심은 이 논쟁과는 별개인 듯싶다. 우리가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관치 논란이 아닌 자질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은행 노조가 기업은행장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모피아, 금융 분야 관련 경력자 전무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 금융산업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경기둔화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금융환경을 둘러싼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금융지주 수장들의 신년

사 이면에는 금융산업의 심각한 위기감이 키워드다. 저마다 안정적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근본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주요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금융당국 간에 관치가 가장 민감한 시장의 현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지난해 시중은행 채용 비리 재판이 진행됐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저마다 세밀에 '마이웨이'를 선언하듯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확정했지만, 금융당국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이다. 이런 메시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결코 들을 수 없다. 한국 금융산업의 역사에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공적인 목적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관치 때문에 금융회사 수장이 수시로 바뀌고 경영 공백, 그리고 임원 인사조차 경영의 자율성이 무시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금융회사도 언젠가 병어리 냉가슴을 앓았다. 최고경영자가 어떤 경영 철학을 담아도 금융비전은 말 그대로 비전일 뿐이다. 이처럼 관치가 금융산업을 제자리걸음을 만드는 한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acw@

시설

기업활력 부활·구조개혁 없이 희망 못살린다

지난해 한국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수출이 5424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3% 줄었다고 1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3.9%) 이후 10년 만의 두 자릿수 하락이다. 작년 12월 수출도 457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해,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았던 탓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6.0% 급락했고, 반도체 업황 악화의 타격이 가장 컸다. 반도체 수출액은 25.9%나 줄었다. 여기에 유가 하락,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수출을 더욱 어렵게 했다. 산업부는 전체적으로 줄어든 625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 단가 하락의 영향이 328억 달러로 절반을 넘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감소분이 10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올해는 수출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수출액 감소폭은 컸지만 물량이 0.3% 늘었고, 최대 약재였던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에 따른 대중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호전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에서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 올해 작년보다 3% 증가한 5600억 달러 안팎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크게 부진했던 지난해의 기저효과

가 작용하는데도 최대 실적을 올렸던 2018년의 6049억 달러보다 큰 폭의 후퇴다. 대외 지향적인 한국 경제의 버팀목은 수출이고, 그 경쟁력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지속 성장을 기약하기 어려운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의 두 자릿수 수출 감소는, 중국 시장과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수출구조와 경제체질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수출 추락은 곧 경제활력의 상실을 뜻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실력 그 자체다. 수출이 무너지면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성장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수출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인 것이다. 정부는 무역금융 확대, 수출 마케팅 지원, 시장 다변화, 유망품목 육성 등 늘상 하는 대책만 내놓는다.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다. 반도체 이후 새로운 선도산업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극복과, 노사 대립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인 고비용·저생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있다. 수출 주역인 기업들은 과거의 장외와 도전에서 멀어지고 있다. 공장을 더 세우고 해외시장을 한 곳이라도 더 개척하겠다는 의욕을 잃었다. 규제와 노동개혁으로 기업부터 살리지 않으면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문제제기, 지금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

설경진의 시정 24시



사회경제부 차장

박원순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

'서울시 돈'이 아니다. 정부가 50%를 가져가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2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에 배분된다. 이 역시 배분원칙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납부된 사례가 없어 부담금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은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액만 남는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개발에 부과되는 기부채납은 대부분 서울시가 갖는다. 다만 기부채납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재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전체 혜택을 위해서 실시한다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가 또다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박 시장은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지금 집값의 문제가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빛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부 채주도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정

권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 폭등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견강부회(牽綱附會)'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도리나 이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합당하다고 우기는,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졸속적인 접근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했을 텐데도 반쪽인거나 관심을 끄는 데만 더더욱 골몰하는 듯한 모습이다.

서울시장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하나의 자리가기는 하지만, 국민 5분의 1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중심도시를 이끄는 책임이 무거운 자리다. 서울시의 결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만큼 의견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발언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을 겪는 일만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skj78@



'안검피부이완증' 세 가지 치료법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손실돼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진다. 피부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매일 마주하는 얼굴에 생기는 눈가 주름과 눈꺼풀 처짐이 있다. 윗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아래로 처지는 것을 '안검피부이완증'이라고 한다. 안검피부이완증이 있으면 처진 눈꺼풀에 덮여 눈이 작아 보이고 답답한 인상을 주게 된다. 증상이 심한 경우 억지로 눈을 크게 뜨다 보니 이마 주름도 잡히고 처진 눈꺼풀이 시야를 방해해 일상생활도 불편해진다.

간혹 안검피부이완증을 안검하수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은 다른 증상이며 치료법도 다르다. 안검하수는 피부 처짐과 상관없이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꺼풀의 아래 경계가 눈동자를 많이 덮는 현상이다. 보통 안검하수의 치료는 눈매교정으로 이뤄진다. 절개나 비절개 눈매교정을 통해 눈 뜨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 준다. 반면 안검피부이완증은 노화로 인해 피부가 늘어져 눈꺼풀의 아래 경계 밑으로 흘러내리는 증상이다. 안

검하수가 근육의 힘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안검이완증은 피부 처짐의 문제인 것이다. 안검피부이완증을 개선하는 방법은 수술 위치에 따라 상안검 수술, 눈썹거상술, 이마거상술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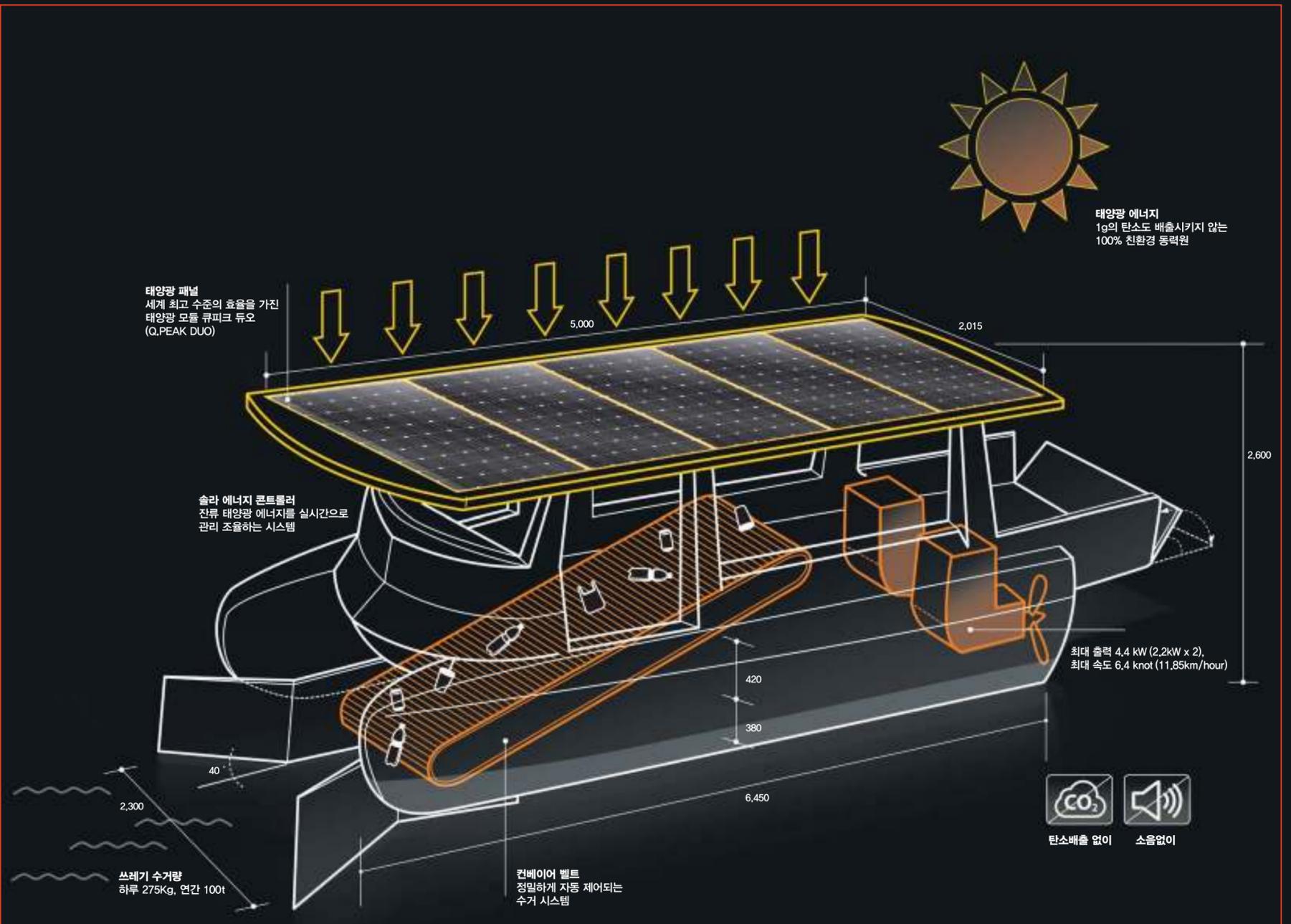
상안검 수술은 노화로 인해 늘어진 눈꺼풀을 올려주어 시야확보를 도와주고 미적인 부분도 충족시키는 수술이다. 눈썹거상술의 경우 결눈썹 아래를 절개해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눈꺼풀을 위로 당겨서 처짐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이마거상술은 눈썹 처짐 현상이 심하고 이마와 미간 주름이 많은 사람이 하면 효과적이다. 특히 눈과 눈썹의 간격이 좁고 이마도 좁은 편이라면 수술을 고려해볼 만하다. 개인 상태에 따라 이마거상술과 상안검 수술 등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주름성형의 경우 단일 치료법으로 콤플렉스를 해결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조금씩 결합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결과 면에서도 훨씬 만족도가 높다.

이현택 바노바기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한화가 기증한 솔라보트는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를 막는 마지막 보루, 메콩강 하류 베트남 빈롱 지역에서 오늘도 수상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한화가 만든 솔라보트는 단 두 가지 동력만으로 움직입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구 산소공급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연간 6,500만톤이나 되는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며, 46억년간 생명의 터전이 되어온 바다.

하지만, 해마다 800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오염, 생태계파괴, 기후변화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배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아이러니 또한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1g의 탄소배출도 없이 태양광에너지만으로 움직이며 연간 220톤의 수상쓰레기를 자동수거하는 한화 솔라보트, 지구에 조금의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지구를 돕는 방식에 대해 한화가 긴 고민 끝에 내어놓은 작은 시작입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렇게 46억년 간 지켜져 온 우리의 지구와 바다가 46억년 뒤 인류의 소중한 터전으로 계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